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南北韓比較一社會

南北韓 基層文化傳承 實態比較

研究執筆責任 崔 仁 鶴

(略歷) 明知大學卒
慶熙大學 大學院卒
東京教育大學 大學院卒 文學博士 (1974)
明知大學 敎授 (1976)
東北亞細亞 民俗學研究所 所長 (1976)

刊行責任 金 淳 培 (調査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第1章　基層文化와　正統性 1

1．問題의　提起 1

2．韓国民族과　韓国文化 2

3．基層文化와　表層文化 8

第2章　南北韓의　民俗伝承実態 19

1．部落構造와　家族体系 20

(1)　韓国의　部落構造와　家族意識 20

(2)　北韓의　社會構造와　家族 28

2．民間信仰과　部落祭 35

(1)　韓国部落祭의　性格과　機能 35

(2)　北韓의　信仰生活 40

(3)　韓国部落祭의　実際 42

(3)　北韓部落祭의　実際 45

3．民俗芸術 49

(1)　農　樂 52

(2)　仮面劇 53

(3)　강강수월래 55

부록：談話会　結果　報告 59

－北韓의　基層文化　実態－

第1章 基層文化와 正統性

1. 問題의 提起

지금까지 여러편의 論文을 써왔지만 이번만큼 가슴이 무겁고 붓끝이 무디기는 처음이었다. 같은 民族이면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祖上을 가진 이 民族이 南北으로 分断된지 30年, 이러한 悲運을 안고 南北의 基層文化를 比較하자니 他民族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슴이 뭉클해 짐을 禁할 길 없다.

예로부터 우리 民族은 統一이라는 지상과제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기 新羅가 三国을 統一했고, 高麗가 後三国을 統一했으며, 朝鮮이 高麗를 継承했다. 高麗朝가 500年, 朝鮮朝가 500年, 計1,000年을 統一国家로 이어왔다. 世界 어느 歷史를 보더라도 이렇게 긴 王朝가 維持되었던 国家나 民族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처럼 우리는 뭉쳐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우리는 解放後 줄곧 分断된채 統一의 気運이 보이지 않은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금 이 時点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南北의 社會 文化를 재검토하고 어떤점이 우리民族의 価値観에 부합되는 社會요 文化가될 수 있을지를 研究하는 것은 절실한 要求라고 본다.

新羅가 三国을 高麗가 後三国을 그리고 朝鮮이 高麗를 비롯, 王朝는 바뀌었어도 그대로 国土가 単一国家로 継承되었던 것은

言語，風俗，思想등 基層文化가 同質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風俗，같은 衣食住生活 같은 言語등을 가진 民族이 分断해야할 아무런 理由도 없다. 그러나 北韓의 実情은 어떤가．말로는 信仰의 自由가 있다고 하나，教會는 托児所나 倉庫로 ，寺刹은 機関員의 修養所나 訓練場으로 쓰며 風俗도 無條件 高位層의 눈에 거슬리면 말살하고 심지어는 歷史까지도 捏造하여 자라나는 二世들에게 잘 못 認識시키고 있으니 만일 이대로 두면 分断의 壁은 더욱 두텁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本論은 民族의 精神을 創造維持하며 歷史를 지탱해온 社會·文化속의 基層的 要素를 규명하여 現在 南北韓에 있어서 어느쪽이 과연 伝統性을 維持하고 있으며，어느쪽이 基層文化를 破壞하고 있는지 科学的이고 実証的인 立場에서 究明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論은 分断된 南北韓에 있어서 30年동안 얼마만큼이나 相互 変化되어 왔는지 그 過程을 把握하는데 目的을 두고 나아가서 統一의 念願을 이루기위한 政策樹立에 있어 다소나마 資料가 되기위한 目的으로 進行한다.

2．韓国民族과 韓国文化

韓国文化는 오랜 歲月을 시달리며 자라왔다. 항상 大陸을 넘겨다보는 섬나라의 侵略과，大陸을 차지하고 있는 強大国으로 부터의 半島에 대한 危脅을 일삼는 이러한 不利한 位置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主体性을 잃지않고 굳게 살아왔다.

이처럼 韓民族이 半万年이란 긴 歲月동안 몰아치는 外勢의 圧力에도 불구하고 自主性을 保守하며 独立国家로서 生命을 維持해온 것은 어쩌면 하나의 奇蹟일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奇蹟을 낳게한 原心力이 무엇일까.

때로는 外勢에 눌려 타협도 했어야 했고, 때로는 굴욕적 位置에서 国交를 맺어야만 했던 때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主権을 잃지 않고 自主하게된 것은 그 바탕이 되는 힘의 伝統文化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韓国民族은 他民族과 다른 固有한 文化를 가지고 있다. 独特한 風俗을 가지고 있고 言語를 가지고 있고 信仰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要素들이 基調가 되어 韓国 民族性을 形成하고 나아가서는 自主性도 培養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自主性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朝鮮時代에는 西欧文化에 대해서도 鎖国政策을 쉽사리 허물어 뜨리지 않았던 것은 歷史가 証明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固有文化가 처음부터 単一文化였던 것은 아니다. 有史以前의 民族과 文化를 理解하기 위해 人類学·考古学·民族学者의 研究業績을 빌린다면 우리의 文化는 民族移動과 더불어 文化가 그리 単純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韓国民族과 文化의 起源에 대해서 孫晋泰氏는 人類学上으로 보아 蒙古人種中의 通古斯種族에 属한다고 했다.[1] 金庠基氏는 文献学上

註1) 孫晋泰 『韓国民族史概論』乙酉文化社 1947, pp.16-19

으로 韓民族의 移動을 東夷系와 関聯하여 옛날에 中国 辺地에서 東으로 移動했는데 한 줄기는 中国 山東方面으로 내려가고 또 한 줄기는 다시 東으로 나와 満洲 韓半島一帯에 分布된 것으로 믿었다.[2] 李丙寿博士는 言語 風俗으로 보아 우리 民族은 蒙古族 満洲族 土耳其族 즉 우랄알타이語 系統일 것이라고 말했다.[3] 金延鶴博士도 韓民族은 알타이語중의 한 民族単位임을 認定하고 있으며[4] 六堂의 不咸論도 文化史的 立場에서 黒海, Pamir 高原 東地의 天山山脈으로부터 Altai 山脈, Sayan 山脈 Yablonoi 山脈에 沿하고 다시 南으로 興安山脈·大行山脈 以東의 朝鮮, 日本, 琉球 중에 Park 中心의 信仰, 社會組織을 가졌다고 言及했으며[5] 이 仮説은 趙芝薫氏에 의해서도 支持되었다.[6] 이밖에도 国内外 学者들에 의해 韓民族과 文化의 起源을 言及한 論文들이 있다.

注 2) 金庠基 『東夷와 淮夷 後代에 대하여』「東方学志」pp.230~31, 1955 (金貞培 『韓国民族 文化의 起源』 P.13 에서 再引用)

3) 李丙寿 『韓国史』 古代篇 P.10

4) 金延鶴 「韓国民族形成史」 『韓国文化史大系 I』 P.35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4.

5) 崔南善 「不咸文化論」 『朝鮮 及 朝鮮民族』 pp.1-58 朝鮮思想通信社 1921.

6) 趙芝薫 『韓国文化史序説』 P.26

즉 Hulbert [7] 三上次男 [8] 三品彰英 [9] 金貞培 [10] 등이 있다.

外国学者로서 韓国文化의 特徵을 分析하므로써 그 起源을 把握하려는 試図를 한 学者는 独逸系 美国人 学者 Eberhard를 指摘할 수가 있다. 그는 中国의 古文献의 記録에 根拠해서 「東아시아의 文化複合」이라는 問題를 研究했다.[11] 그의 論文의 中心은 中国 週辺의 諸民族에 関한 記述을 集大成하는 동시에 이 民族들이 대체 어떠한 文化를 享有하고 있었으며 中国文化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役割을 했는지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 중에서 韓国部分에 대한것만 要約해 보면, 韓国文化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要素가 複合되어 있다고 言及하다.

첫째 中国文化의 要素인데 여러가지 金属製 혹은 木製容器 그 밖에 武器나 囲碁 亀卜이나 蓍草를 使用한 占卜, 三年喪의 習俗, 中国風의 結婚의 習俗등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것은 中国文化의 영향이며 이중 어떤 部分은 秦代로부터 漢民族의 영향을

註 7) Hulbert, H. B. Hulbert's History of Korea 1962.
8) 三上次男 『古代東北 アジア史 研究』 吉川弘文堂 1966.
9) 三品彰英 『濊貊族小考』 『朝鮮学報』 4, 1953
10) 金貞培 『韓国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学出版部 1973.
11) Wolfrem Eberhard, Kultur und Siedlung der Randvölker Chinas, SS.23-28, Leiden, 1942.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로는 華南系의 要素가 있다고 했는데 즉 中国의 양자강유역의 南으로부터 仲媒婚이 아닌 自由婚, 그리고 結婚後 처가에 가서 살다 첫아이를 나면 父의 집으로 옮겨오는 風俗등을 들었다. 그밖에 韓国南部에 있었던 文身이라든가 특히 馬韓에서 死者를 위해 소를죽인 습관, 扶余에 있어서 소의 발톱을 가지고 占을 치는 習俗등은 中国의 南部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세번째는 퉁그스的(肅慎系)要素가 있다고 했다. Ebehard는 여기서 특히 샤마니즘의 問題를 지적했다. 그리고 상투도 퉁그스族의 習俗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마지막에 그는 툴크系(匈奴系)要素를 예로 들었다. 兄이 죽으면 형수와 동거한다는 것을 예로 들었고, 말(馬)의 사육이나 제물에 대한 習俗은 툴크族의 그것과 일치한다고했다. 이밖에 扶余와 툴크의 神話는 太陽中心의 모티브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星座崇拜 특히 太陽崇拜를 비롯한 저들의 宗教의 傾向을 압도적으로 天体的이며 太陽的이다. 이점을 Ebehard는 특히 툴크와 일치하다고 主張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습관이나 習俗을 지적하면서 기술하여 韓国文化의 기원을 생각하는 마당에서 크게 問題를 提起해준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그리고 外国学者로서 이만큼 풍요한 문헌을 기초로 해서 古代韓国文化의 複合性을 論한 学者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Eberhard의 韓国

文化의 複合性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客觀性이 결여된 것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前述한 바와 같이 韓国의 民俗을 踏査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中国의 古文献 특히 三国志의 東夷伝이나 隋書와 같은 文献을 中心으로 했으며 中国을 中心으로 해서 변방의 文化를 考察했다는 점에서 多少 논술의 中心이 中国에 있는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三国志의 東夷伝 自体가 中国人이 쓴것이며, 그당시 얼마나 韓国文化를 理解하고 썼겠느냐 하는 점은 疑問을 가져도 될 것이다. 그리고 Eberhard는 다른時代의 報告를 하나로 정리해서 文化複合을 設定했으며, 역사적인 변화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것 같다. 예를들면 隋書와 같은 後期의 文献에 나오는 記事까지도 魏志에 나오는 보다 前期의 記事와 관련지어 버렸기 때문에 時代的変化는 무시한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説은 上記 약점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들면 Shamanism이 퉁그스 계통이라든가 扶余의 起源神話가 툴크와 일치하고있다는 것등은 지금도 否定할 아무것도 없다. 특히 우리가 理解해야 할 것은 우리의 文化가 複合的이라고 한것은 文化라는 것이 民族의 移動 時代의変化 社會発達등과 더불어 수시로 変하며 특히 隣接하고 있는 民族間에는 심하게 교류하여 複合性을 避할 수 없다는 조건이 개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国은 韓国文化가있고 中国은 中国文化가

있으며 日本은 日本文化를 가지고 있다. 韓国文化는 그것이 自体内에서 創造되었든 外部의 영향을 받았든 그 土地에 정착해서 土着化되면 그것은 輸入文化가 아니라 그 文化의 所有者의 文化가 되는것이다. 만일 外来文化가 土着하지 못할 때 그 文化는 異質的이요 배타적이다. 古代文化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民族의 文化를 닦아왔고 伝統을 이루어 왔다.

3. 基層文化와 表層文化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文化的 要素가 伝統文化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伝統은 民族의 主体性과 일치하는것으로 수천년동안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불변하는 特性이 있다.

예를들면 의복에 있어서도 中国의 영향을 받아 朝廷이나 官吏들이 입는 官服을 着用하여 数百年 내려오면서 着用했지만 그것이 우리 伝統衣服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衣服은 바지 두루마기 치마 저고리가 있다. 이것이 伝統的 衣服이라 할 수 있다. 部落祭에 있어서도 儒教의 영향으로 形成의 많은 部分이 儒教式이 되었지만 Shaman이 개입하여 神接儀式를 하는 순서는 역시 우리의 伝統的 順序를 継承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文化는 伝統的 文化위에 또 다른 外勢文化가 겉들여져있는 重層的 要素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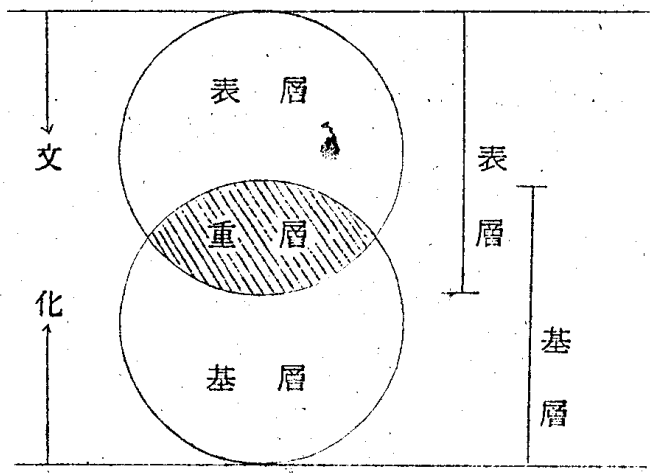
이 重層的 要素를 독일의 Hans Neuman은 伝統的인 것을

基層文化라 했고, 그 위에 덮여진 것을 表層文化라 했다.[12] 위에서 예로들은 衣服에 대해서 보더라도 官服을 表層文化라 한다면 韓服은 基層文化가 될 수 있고, 部落祭에 있어서 執司가 燒紙하고 祝文을 읽는것 같은 順序는 表層文化라 한다면 Shaman이 部落祭에 참석하여 儀式을 하는 것은 基層文化라고 할 수 있다.

基層文化란 身分이나 階層의 上下를 막론하고 그 民族의 누구나가 다 日常的으로 지니고 있는 継承된 文化를 말한다. 衣食住를 비롯해서 社會的인 習俗, 経済生活의 慣習, 年中行事, 産育, 冠婚喪등 通常儀式 또는 民間芸術 民間文芸 갖가지 俗信, 民間信仰등 모든 分野에 있어서 伝承性을 가지고 있다. 現代生活에 맞춰 冠婚喪祭를 制度化해서 장려한다 해도 内容에 있어서는 在来의 方式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와같이 伝統文化는 어떠한 時代의 変化에도 屈하지 않고 代代로 전해 내려온다. 또 外部로부터 수입된 文化가 民族生活에 부합되었을 때 그 時代의 流行에 그치고 말면 그것은 風俗이 되지만 다음 世代 또 그다음 世代로 継承된다고 하면 그것은 民族文化로서 基層文化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도표로서 表記하면 다음과 같다.

註12) Walter Diener, Deutsche Volkskunde, 1937
(川端豊彦 訳『ドイツ 民俗学入門』P. 4 註에서 再引用)



크게 우리의 文化를 둘로 나누어 基層文化와 表層文化로 区分짓는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理論上으로는 区分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部分이 基層과 表層이 重複되는 것이 많다. 이것은 重層部分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예를들면 結婚式에 있어서 国際的인 流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면사포를 쓰는 新式結婚이 流行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로부터 継承되어 오는 旧式結婚이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와 같이 結婚이라는 두 形式이 併行하여 存在할 때 伝統的인 旧式結婚은 基層性이 있고 新式結婚은 表層性이 있다고 하겠다. 아직은 新式과 旧式이 混合된 結婚式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表層과 基層은 엄연히 区分된다. 그러나 旧式結婚 하나만을 놓고 볼때 과연 이것이 伝統的인 것인가 疑問이 없지 않다. 新郎 新婦의 服装은 平服도 아니고 礼服도 아닌

新郎은 紗帽, 革服(官服)이요 新婦는 円衫 큰머리 七宝簇頭里 첩지 鳳簪등의 服飾으로 단장한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리의 固有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礼法은 四礼便覧에 엄격히 규제 되어 있으며 적어도 儒教의 形式이나 王室의 制度가 民間에 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継承되어 내려온 遺風이 아니라 途中에 융합된 外部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旧習과 新習이 完全히 Combination 되어서 造化를 이룬다. 이런 경우 表層性과 基層性은 손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개의 要素가 하나로 되어질 때 이것을 重層性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民俗文化에는 이와 같은 重層文化가 基層보다 다 더 많은 것이 現実이다.

또 하나 例를 들면 줄다리기는 年中行事의 農耕儀式으로서의 줄다리기와 단순한 競技를 目的으로 勝負에만 치우치는 줄다리기에 두가지 形態가 存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基層文化로서의 줄다리기를 살펴보면 全国民俗競演大會에 출연한것과 같은 大規模의 줄다리기는 勝負를 目的으로 하는가 하면 内容的으로는 勝負라기 보다 占豊에 더욱 치중하는것 같은 傾向이 있다. 勝利한 쪽이 豊作한다든가 줄 자체가 암줄 숫줄의 구별이 있다든가 하는 要素는 伝統的인 農耕儀式으로의 占豊信仰이 残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後者의 경우, 우리나라에 流行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어떤 契期로 勝負를 주로 하는 줄다리기가 沈下해 들어왔는지는

자상하지 않으나 大衆 스포츠의 遊戲로 盛行하고 있는 것만은 事実이다. 現在 우리나라에 이 두 形態가 存在하고 있는 이상 文化史的으로 볼 때 勝負를 目的으로 하는 줄다리기는 表層文化라 할 수 있고 農耕儀式으로서의 줄다리기는 基層일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 重層性이 이미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発展的 類型으로 보면 基層과 表層이 併行하는 A型과 基層과 表層이 합해서 重層을 이루는 B型으로 나눌 수 있다.

表層이 基層을 吸収하느냐 또는 그 反対로 基層이 表層을 吸収하느냐 하는 問題는 한 마디로 断定하기 어려우며 複雜한 諸要素들이 関聯되어 있기 때문에 한개 한개의 民俗을 分析 研究하지 않으면 把握하기가 어렵다.

文化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막연히 伝統性을 尊重한다는 것보다는 基層과 表層으로 이루어진 重層文化에 대한 認識이 앞서야 한다. 우리 文化속에는 純粋한 伝統性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重層文化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이것이 伝統意識이다 저것이 伝統文化다하고 입버릇처럼 떠들지만 이러한 結果가 現実文化에서 発見된 것이라면 참으로 危険스러운 것이다. 예를들면 現在 우리가 踏襲하고 있는 在来式 結婚이나, 혹은 部落祭에 있어서 儀式의 節次가 모두 韓国의 伝統이 아니라 때로는 変化 때로는 外来文化의 複合으로 이미 重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重層文化에서 伝統文化를

가려내어 韓国 民族의 主体性 혹은 主体意識을 発見하는 作業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이다.

혹은 이러한 方法論이 観念的이고 推象的이라고 할지 모르나 적어도 方法論이 科学的 客観性을 띠어야 된다는 것만은 強調하고 싶다.

日本이 二次大戦에서 敗戦後 良識있는 学者들이 自民族을 다시 한번 白紙로부터 反省해 보자는 캠페인이 싹텄다. 이러한 캠페인에 크게 寄与한 것이 民俗学이었다. 지금까지 日本을 象徴한 民族意識이란 権力層, 一部貴族과 같은 上位階層의 代辯이었지 결코 日本国民全体의 意識이 아니었다는 점을 저들은 깨달았다. 日本民俗学의 権威者인 和歌森太郎는 柳田国男이 提唱한 重出立証法을 発展시킨 学者인데 이 重出立証法이란 다음과 같다.[13]

伝統文化로서의 民俗事象은 歴史的 産物이긴 하지만 그 発生·成立은 過去의 여러段階의 것이다. 그것이 伝承한 結果, 어느 時点에서 横断的으로 資料를 採集해 보면 거기에는 아주 새로이 発生한 民俗도 있으며 다소 이전에것도 있으며 또 前近代的인 것, 또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다. 民俗的 伝承의 각 테마에 따라 그 같은 見解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地方別差는 時代別差라는 公式이 成立된다. 그래서 各 資料들은 相互 比較해

註13) 和歌森太郎 「新版日本民俗学」 PP, 49-58
清水弘文堂 1970.

가며 相互 接触하면가 重첩되는 것을 中心으로 해서 資料들을 縱横으로 整理하면 各各 테마별로 歷史的 変遷를 어느 程度 理解할 수 있게된다. 이것을 다시 図式化해 보면 같은 種類의 伝承이라고 보아지는 資料들을 若干의 類型別로 나누어 各各 要素別로 分析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자.

(1) a・b・c・d・e・f 라는 要素를 包含하는 伝承

(2) a・b・c・d・・・・g・h

(3) a・b・・・・・・・・g・h・i・k

(4) ・・・・・・・・・・g・h・i・l・m

이 4개의 要素를 겹쳐보니까 (1) 과 (2) 는 a・b・c・d를 共通要素로 하고 있으며 (2)와(3)은 a・b・g・h를, (3)과(4)는 g・h・i가 各各 共通하고 있다. (1)과 (4)는 어떠한 共通要素는 없지만 (2)와 (3)을 가운데다 두어보니까 同一한 系列에 属하는 伝承이라는 점이 推定된다. 그런데 a・b・c・d와 g・h・i 중에서 어떤것이 本質的 要素라고 하며 어떤것을 第2次的인 変化要素라고 볼수 있을까가 問題가 된다. 最初로부터 本質的 要素는 各例証을 통해서 항상 같은 形式을 나타내며 滿一 変化가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적은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에 比해 変化要素는 形式이 대단히 複雜한게 特徵이어서 그 自体의 類例中에서도 比較的 共通形式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本質的인 것은 그것이 基層的 要素이기 때문에 変化가 잘 않되며 이러한 要素가

完벽하게 包含되어 있는 事例는 原形에 가까운 것이라고 判断해도 좋을 것이다. 위의 図式에서 4개의 事例를 比較해 보면 (1)에서 (4)로 変化해 갔거나 그 反対現象이거나 짐작이 간다. 直接 実例를 들어 이 図式에 맞춰보면 어느것이 正当한 것인가를 찾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実例를 들어 이 公式에 맞춰 妥当性을 実証해 보자. 줄다리기民俗은 全国的으로 分布되고 있으며 그 変化의 現象도 각각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例가 될 것이다.

(1) 외줄로 男女別이 잡아당기는 類型

(2) 암줄·숫줄의 쌍줄을 이어 男子끼리 잡아당기는 類型

(3) 암줄·숫줄의 쌍줄을 이어 部落民 全員이 参加하여 잡아당기는 類型

(4) 외줄로 男子끼리 혹은 女子끼리 잡아 당기는 類型

줄다리기를 대충 類型別로 보면 現在 우리나라에서 実施하고 있는 것은 위의 4개의 類型속에 包含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要素別로 分析해서 類型別로 分析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図式으로 表現되었다.

要素別 類型図式

時期·材料·勝負·祈豊·儀式·禁忌·俗信

(1) a · b · c · d · e · f · g

(2) a · b · c · d · e · f · g

(3) a · b · c · d · e · f · g

(4) ・・b・c・・・・・・・・

註 時期・・大体的으로 正月, 五月 혹은 秋夕과 같은 季節에 定期的으로 実施하는가.

材料・・짚으로 만드는가

勝負・・勝負에 目的을 두는가

祈豊・・勝利하면 豊年이 든다고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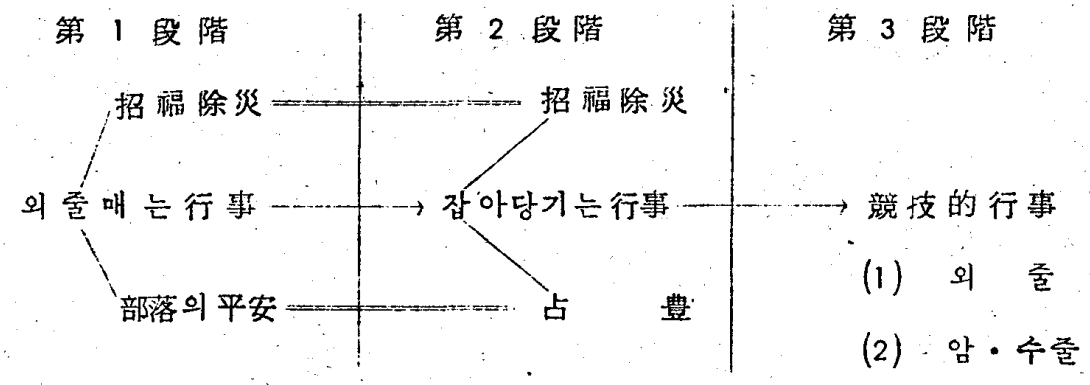
儀式・・宗教的 儀式의 한 部分으로 行事를 하는가.

禁忌・・여자는 가까이 해서 안된다. 보관해둔 줄은 텃치해서는 안된다는 禁忌가 있는가.

俗信・・줄을 집으로 가지고 가면 福이 있다든가 아들을 낳는다든가 하는 俗信이 있는가.

이 要素들을 整理해 보니까 아무래도 줄다리기는 스포츠로 出発한 것이 아니라는 点을 알 수 있다. 現在 우리가 볼수 있는 줄다리 類型은 말할것 없이 (4)類型이다. 해서 이것이 伝統文化라고 断定한다면 큰 過誤라고 할 수 있다. 事実 現存하고 있는 確率로 보면 (4) → (3) → (2) → (1) 의 順序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図式을 分析해 보면 가장 原形, 가장 伝統性이 強한 類型의 順은 (1) → $\binom{2}{3}$ →(4)로 変遷해 갔다는 것을 충분히 理解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整理하여 가장 原初的인 줄다리기 形式으로부터 競技的 줄다리기까지의 発達過程을 図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図式이 우리에게 주는 結果는 文化의 諸要素가 어떠한 契期에 의해 変化되고 発展한다는 事実이다. 줄다리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떠한 形態가 固有한 것인지를 分別하기 어려울만큼 様相을 띄고 있으니 現在의 가장 流行하는 要素가 우리의 伝統이라고 錯覚하여 그것에서 伝統意識이나 主体性을 찾으려는 過誤는 犯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基層的 要素를 찾기위해 가능한 모든 民俗의 諸要素들을 위와 같은 図式에 의해 調査 分析하므로 算出되는 공약수를 찾아내는 것 만이 最善의 길이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指摘하고 싶은 것은 伝統이란 自然的인 취세에 따라 変化해가는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나라가 半島라는 地理的 惡條件에서 外勢에 항시 圧力을 받아가며 수천년을 継承해 왔지만 호락호락 伝統文化를 짓밟거나 外勢文化에 눌려 자취를 감추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民族의 自主性이요 자기文化를 아낄 줄 아는 心性의 結果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時点에서 우리는 우리의 伝統文化를 통해 우리의

民族性을 더 한층 理解해야 되며 이러한 民族性을 理解하므로 우리의 伝統文化를 기리 누리면서 発展해 나가는 동시에, 어떤 文化가 우리의 民族性에 부합되며 어떤 文化的 要素가 우리民族에게 付合되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第 2 章　南北韓의民俗傳承實態

이미 任東権博士가 『南北韓의 文化伝統保存現況분석』이라는 테-마의 論文을 낸 바가 있으므로[14] 本項에서는 굳이 중복해서 言及할 必要가 없다. 그러므로 本項에서는 実例를 들어가며 比較하면서 論評을 進行하고자 한다.

韓国은 한마디로 말해서 文化政策은 지극히 開放的이며 自由的이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文化를 尊重한다는 뜻으로 解釈할 수가 있다. 外国의 물밀듯 들어오는 流行도 制度上으로 抑圧하면 群衆心理的으로 더욱 陰性化 되어가는 동시에 群衆의 스트레스가 점차로 심화되면 副作用까지 発生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陽性化하면 自然的으로 不必要한 것은 消滅되며 좋은 점은 発展해 나가게 된다. 이 정도의 尺度가 우리나라는 水準級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固有한 伝統文化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쉽사리 外勢의 文化를 無批判的으로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実情은 어떤가, 1945년 解放과 더불어 북녁땅에는 共産主義가 들어와 南北은 両断된채 지금까지 30 여년이 지내왔다.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지금은 同族이면서도 異民族처럼 보이고,

---

註 14) 任東権『南北韓의 文化政策의 比較』 国土統一院 1977.

他国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文化의 差異에서 오는 同鄕性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韓国은 누가 봐도 韓国歷史의 継承国家라 할 수 있다. 愛国歌를 비롯해서 国旗까지도 朝鮮時代를 계승하고 있으며 文化도 그대로 継承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国旗도 새로운 것이고 国歌도 새로운 것이고 言語도 改造해 가고 있고 歷史도 捏造시키고 있고 수천년동안 내려오는 文化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며 오로지 金日成을 神格視하며 英雄으로 만들어 새 歷史의 創造者라는 美名하에 一人独裁共産主義 国家를 만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事実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結論的으로 미리 말한다면 南北韓을 놓고 볼때 韓国은 正当한 이 나라의 継承国이라 할수 있다.

너무 結論부터 強調하기 때문에 感情的인 敍述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면 하나 하나 民俗의 要素들을 分析比較하므로서 南北韓의 民俗伝承이 어떤 様相을 띄고 있는지를 考察하기로 하자.

1. 部落構造와 家族体系

(1) 韓国의 部落構造와 家族意識

〈部落〉은 学術用語이며 実地 農村에서는 마을, 동네, 촌(村) 등으로 불리운다. 部落은 여러채의 家屋이 모여 하나의 群을 形成하고 있는 共同体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家屋이라 했지만 이것은 建物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 집(Chip)이라 하면 建物과 家族의 通称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집이모인 하나의 무리(群) 즉 単位가 하나의 共同体로서 部落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部落은 대개의 경우 血縁이나 門中으로 구성된다. 社會人類学者들이 즐겨 쓰는 말인 Lineage Organization(血縁組織)으로 表現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伝統的인 部落構造는 lineage System(血縁系統)과 lineage Organization의 統合으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部落構造를 理解하는데는 門中이나 部落関係를 먼저 理解하야만 한다.

그런데 韓国의 伝統社會는 특히 가족中心的인 것에 特徵이 있으나, 이러한 伝統的인 社會에서 韓国의 家族은

①家族은 指揮統率하는 家父長権 尊重이며

②父子関係를 根幹으로 하는 直系家族的 構造原理이며

③家族의 自律性의 세가지 特色을 指摘했다.[15]

그러면 概括的인 理論에서 具体的인 実例를 들어가 実証的으로 韓国의 伝統的 部落構造의 実態를 알아보다.

서울大学校 李光奎教授가 最近에 調査한 恩津林氏의 同族部落에 대한 報告에 의하면[16] 이 部落의 경우 lineage system(親族体系)은 直系血縁의 原理와 兄弟分家에 따른 支派作用이 끝없이 作用하여 兄弟의数, 子息의 数만큼 무한대로 拡散한다는 것이며

註15) 国土統一院『大韓民国의 民族史的正統性』「第4節 伝統的 国民生活」 1976. p.278

16) 李光奎 「親族体系와 親族組織」 文化人類学全国大會 発表要旨에서 1977.10.7.

lineage organization (親族組織)은 特定한 祖上을 中心하여 形成된 祖上崇拜를 目的으로 하는 祭祀集団이라고 解釈했다. 両者의 関係는 system이 organization을 이루는 基本이 되고 必要條件이 됨에 대하여 organization은 system을 強化하는 충분 條件이 된다. 그리고 両者는 補完的인 同時에 密接한 関係를 갖고 있다. 密接하다는 것은 두가지가 次元을 달리 하면서 모두 直系血縁의 原理를 갖고 있다. 李教授는 이 같은 調査를 통해서 韓国同族의 特色을

①地縁性과 関係가 없다는 것

②純粋 祖上崇拜를 一位로 한다는 것

③集団内에 本家, 分家되는 身分的 序列이 적고 民主的이라는 것를 指摘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民族의 意識構造가 地縁보다는 血縁이 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 社會에서 〈집안〉이라는 굳은 意識의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③에 있어서 本家·分家되는 身分的 序列이 民主的이라는 것은 하나의 変化된 現時点에서의 実証이며 歷史的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継続해서 또 다른 地域에서 다른角度에서 調査된 報告를 参考로 한다. 現在 Harvard大学에서 研究生活을하고 있는 前 東京大学의 伊藤亜人는 1972年부터 約2年間에 걸쳐 全羅南道 珍島의 部落構造를 調査한 바가 있다. 外国学者의 눈에 韓国部落이 어떻게 비쳤는지 関心거리가 되므로 여기에 概括해서

要約해 본다.[17]

全羅南道 珍島에 있어서의 伝統的 部落은 少数의 海村을 除外하고는 純農村이 圧倒的이다. 島内에는 186개의 伝統的 部落〈동네〉가 있고 이것들은 合計300 가까운 自然部落으로 形成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行政的으로 보면 75개의 里単位로 編成되고 있으며 섬 全体가 6개面으로 区劃되어 있다. 郡庁의 所在地인 珍島面의 中心地〈읍내〉에는 行政警察·文教·経済등의 中心이 되어있다. 陸地와의 交渉은 모두가 이 〈읍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交通도 〈읍내〉를 起点으로 해서 放射状으로 発達되어있다. 〈읍내〉에는 商店街와 도매商이 있으며 이것이 島内의 経済流通의 中心役割을 한다. 珍島는 또한 〈읍내〉를 中心으로 해서 이것을 둘러싼 4개의 衛星的인 定期市場에 의해 5개의 市場流通圏으로 나누어져있고 〈읍내〉에서는 商店이나 도매商을 겸한 商人들이 4～5日 간격으로 장날마다 이곳들을 巡廻하고 있다. 定期市場은 거의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의 半経을 가지고 있으며 이 半経속의 少数의 誤楽的인 機會, 情報交換의 場所로도 市場은 重要한 役割을 한다. 따라서 市場圏과 通婚圏은 거의 相通하리라고 본다.

註17) 伊藤亜人「契 システムにみられる Chin han-saiの分析〈韓国全羅南道珍島における村落構造の一考察〉」『民族学研究』 41巻4号 1977.3

珍島의 地域性은 개개의 部落內에는 현저한 性格의 差異가 認定되지 않지만 이것을 크게 두 類型으로 나누는 것이 可能하다. 하나는 部落民이 屬해있는 門中(父系血緣集団)의 居住狀況이나 住民의 流動性등을 基本的인 지표로 한것이다. 또 하나는 門中이 部落構成의 重要한 基盤으로 되어 있으며 流動性이 적은 部落, 둘째는 住民이 雜姓으로 되어있어 住民이 각각 屬해 있는 많은 門中이 部落外에 많은 멤버를 가지고 住民의 流動性도 높은 部落이다. ①의 類型은 소위 同族部落에 가까운 것으로 住民이 屬하는 몇개의 限定된 門中이 村落을 地域的 単位로 해서 현저하게 Localize(地域性)되어 있는 部落이다. 이 때문에 父系親族関係가 部落을 넘어서서 拡大되는 경향이 弱하고 部落生活에는 門中內의 秩序原理가 크게 作用한다. 따라서 他部落과의 親族関係는 主로 婚姻関係에 국한된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一般的으로 弱하다. 이것에 比해 ②의 類型의 部落은 종래 雜姓部落이라 불리어온 部落으로 이러한 곳에서는 門中은 多数의 部落에 걸쳐 組織되는 경향이 強하다. 門中은 媒介로하는 部落間의 関係가 重要하게 된다. 또 部落內에서는 門中의 秩序原理가 그다지 큰 規模로는 안되며 村內婚이나 妻方居住婚도 볼 수 있다. 또 住民의 転入転出 뿐 아니라 日常生活에 있어서 協力의 面으로도 住民의 部落을 초월한 流動性이 높다.

珍島에 있어서의 部落의 大部分은 分明하게 上記類型에 맞춰지며 両者의 数는 그다지 기울지 않고 팽팽한 상태이다. 一般的으로

봐서 ①類型의 部落은 ②類型의 部落보다 옛날에는 높은 社會的 評価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部落의 自律的 閉鎖的 性格이 強하며 保守的 경향이 보인다.

部落을 形成하는 単位인 집〈Chip〉은 높은 담으로 둘러쌓여 物理的으로 外界와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生活単位로서도 현저하게 独立性이 나타난다. 즉 隣接한 世帯와의 사이에는 담넘어 이루는 Communication이 적고 서로 불간섭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듯한 印象이 짙다. 世帯는 夫婦家族,直系家族을 주된 member로하고 있으며 夫方居住婚에 의해 長男夫婦는 父母와 同居하며 直系家族을 構成하며 次男以下의 夫婦는 父母 長男夫婦와 一時期 同居한 뒤에 家屋·農地등의 最低限의 生活基盤을 분배받아 順次 父의 部落内에 独立된 世帯(작은집)을 마련하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한다. 祖上의 祭祀는 一般으로 長男 즉 큰집이 父의 祭祀를 맡은것에 대해 母의 祭祀는 次男(작은집)이 맡는 관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長男이 祭祀의 権利義務의 모두를 가지고있지 않고 큰집,작은집 사이에 分配된 均等化가 構成되어 있다.

다소 장황한 기분이 들지만 珍島라고하는 一定地域의 部落構造와 家族体系를 理解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이 韓国全体를 代表한 構造는 아니다. 첫째 雜姓으로 이루어진 部落이 同族部落보다 後期의 発生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雜姓部落이라 하더라도 血縁을 中心으로 한 門中은 部落을 초월해서 構成되어 있다는 점은 바로 이것을 立証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珍島에서는 父의 祭祀와 母의 祭祀가 長男·次男以下로 分離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発達過程에서 생긴 類型이며 비록 次男以下가 分家했더라도 모든 祭祀権은 長男에게 있고 따라서 次男以下가 祭祀費用에 대한 負担의 一部를 分担하는 形式이 가장 比率이 많은 것이 아닌가 본다.

그러나 이러한 同族部落이나 父系, 直系家族構造가 위의 報告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항상 伝統性을 維持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家族制度만 하더라도 大家族制度로부터 都市化의 発展에 의해 核家族制度로 変化해가는 現実情이다.

그러면 現時点에서 이처럼 社會와 家族構造에 있어서의 意識이 変化해가는 傾向에 대해서 数学的인 調査를 確認해 본다.
崔在錫教授의 調査에서 몇가지만을 引用하기로 한다.[18]

表5. 父母가 죽어서 財産을 相続할 때는 長男에게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 파 트	部 落
長男에게 많이 준다	45.5	77.6
그럴 필요 없다	51.7	20.0
기 타	2.8	2.4
계	100.0	100.0

註18) 崔在錫 『韓国家族 研究』 民衆書舘 1966. pp.350-364

表6 . 父母의 扶養에 관하여 가장 責任을 질 子息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 파 트	部 落
長 男	34.5	66.2
長男과 独立男子	20 .0	10 .5
子息들 全部	42.7	21 .5
기 타	2.8	1 .8
계	100 .0	100 .0

表8 . 祭祀를 지내는 것은 必要하다고 생각 하는가 .

	아 파 트	部 落
祖上의 靈魂의 慰労	57 .2	70 .7
慣習이기 때문에	26 .1	21 .4
所用이 없다	15 .3	6 .2
기 타	1 .4	1 .7
계	100 .0	100 .0

表10 . 딸만이 있을 경우의 養子는 어디서 취하는 것이 좋겠는가 .

	아 파 트	部 落
사위를 養子로	25 .5	7 .9 .
親戚 집에서	19 .3	72 .7

親戚 아니라도 좋다	10.4	8.5
養子 하지않는다	41.4	6.7
기 타	3.5	4.2
계	100.0	100.0

紙面關係로 以上 4개의 表만 引用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都市와 農村間의 伝統意識에 関한 현격한 差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都市化해 가는 現社會의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보며 이것을 막는 것은 거의 무리라고 본다. 이와같이 変化해 가는 別個의 그룹을 表層文化라고 본다면 역시 우리나라의 社會構造와 그 核心이되는 家族体系도 역시 基層의 表層을 複合인 重層性 文化의 維持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北韓의 社會構造와 家族

北韓에서는 社會主義的 社會政策에 따라 伝統的인 家族制度가 1950年代부터 政策的으로 파괴되고 또 家庭生活의 意義도 달라지게 되었다. 統一院 資料[19] 에 의해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家族主義는 門閥主義라 하여 宗派形成의 原因으로 보고 厳戒하고 있다. 따라서 家族間의 격리를 통하여 個人은 全体主義的 社會의 個体에 불과하다고 強調한다. 이러한 政策은 1947年에 戸籍制度를 廃止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註 19) 国土統一院 上揭書 PP289~284

(2) 5戶担当制를 두어 家庭의 自律性을 無視하고 党의 集中的 監視로 社會의 基本単位가 家庭이 아니라 個人이며 社會構成 要素인 個人을 家庭에서도 社會(国家나党)의 指導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私有財産権이 認定되지 않기 때문에 家庭은 家庭中心의 生活営爲보다 全体社會에 拘束性을 더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家主의 家財権이 없기 때문에 家督権을 行使할 수 없고 더우기 党이나 団体가 家庭個人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家長은 形式的인 家族의 代表일 수 밖에 없다.

婦女子의 경우에 있어서도 社會主義建設이라는 美名下에 労動에 動員되고 各種団体에 加入해야 하며 갖가지 会議등으로 家庭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린子女들은 托児所에서 크게되고 따라서 母性愛가 있을리가 없다. 어린子女는 크면서 父母의 情보다 党과 袖領의 품속에서 자란 것으로 알고있으니 그들의 集団인 家庭에 倫理的이며 情緒的 集団이란 말은 適用할 수가 없다. 이런 点으로 보아 北韓의 社會나 家族構造에서 휴매니티를 찾는 다는것은 거의 無理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家族은 저들의 制度上의 細胞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血縁에 기초한 家族의 構成要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다.

위의 事実들을 보다 実感的으로 整理한 報告書로서

서울大学校의 李文雄教授의 「共産体制하에서의 親族組織」 20) 이 있다. 그 중에서 一部를 引用한다면 北韓에서 뿌리깊은 伝統的인 親族組織을 파괴시킨 것은 共産化 初期에 이미 취해졌다. 가장 初期의 조치는 1946초에 実施된 土地改革에서 찾아볼 수 있다. 〈農地는 耕作者에게〉라는 슬러건을 들고 進行된 이 土地改革에서는 農家口当 5정보 以上의 農地는 모두 몰수 되었고 不在地主 및 소위 社會政治的인 反逆者의 部類에 属하는 사람들의 農地를 몰수 했다. 그러나 한가지 重要한 事実은 伝統的인 親族組織자의 正面衝突을 避하기 위해서 門中所有의 墓地에 関聯된 山林은 몰수 対象에서 除外했다는 점이다. 물론 門中所有의 田畓은 全部 몰수 되었다. 이로서 門中集団은 祖上伝来의 強力한 社會組織을 구사할 수 없이 되었고 財政的인 土台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親族組織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친것은 아마도 農業協同化가 아닌가 한다. 1953年에 시작해서 1958年에 完了된 이 캠페인에서는 各農家의 극히 작은 너비의 채소밭을 除外하고는 모든 農地가 協同農場에 흡수되었고 農民은 오직 그들의 투입한 労動量에 의해서만 分配를 받게 되었다. 이로서 그들은 家庭内에서의 直系祖上에 대한 소규모의 祭祀는 지낼수 있서도 家族의 範囲를 벗어난 門中単位의 祖上祭祀를 위한 財政的인 基礎를 完全히 消滅시키고

註 20) 李文雄 「共産体制下에서의 親族組織」 文化人類学會 全国大會発表要旨 1977.10.7.

말았다.

工業化 및 農業의 工業化를 위한 人力需給政策의 일환으로 일어난 人口의 地域的 再配置는 親族組織의 弱化를 더욱 부채질 했다. 새로운 開発地域에 人力을 投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各地域에 均衡을 이루기 위하여 訓練된 要員들을 中央에서 一方的으로 配置하였다. 高等教育을 받은 子息들은 그들의 父母가 사는 故郷으로 가질 못하고 거의모두가 다른 地域으로 配置되어 家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軍服務를 만친 除隊兵도 결코 故郷으로 돌아가는 수가 없이 새로운 地域(대개가 落後된 協同農場)으로 配置된다.

이상의 実際로 봐서 北韓의 소위 部落組織과 血縁, 家族의 伝統性은 完全히 그 機能이 喪失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希望을 걸고 있는것은 秘密裡에 家庭単位로 家祭를 지금도 올리고 있다는 事実에 대해서 北韓同胞들이 그러한 혹독한 政治下에서도 屈하지 않고 伝統性을 継承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同情과 측은한 마음을 禁할 길이 없는 것이다. 너무 感情的인 表現이 될지 모르나 이러한 실오라기만한 伝統마저도 사라지기전에 統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同質的인 基層文化가 간격이 벌어질수록 統一의 壁은 점차로 두꺼워 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北韓에 있어서의 部落構造와 家庭体系에 관한 変化過程을 정리하면 다음 表와 같다.

해방전	1947	1953 ~ 1958	1970年代
伝統性維持	農地改革 門中墓地山林은 認定 門中祭祀 維持 家族祭祀 維持	農業協同化 모든田畓은 協同農場의 所有가됨 門中祭祀 廢止 父母나老人層만이 家祭를 겨우 명맥을 유지	伝統性消滅

다시 이상의 北韓에 있어서의 変化過程을 土台로 해서 韓国과 比較하여 表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韓国	北韓
1. 部落構成	A. 門中이나 血縁中心의 部落 維持 B. 雜姓部落 維持	協動農場中心의 部落
2. 家族制度	A. 家父長 制度 (大家族制度) B. 分家制度 (核家族制度)	社會組織의 細胞로서의 単位
3. 遺産	A. 直系家族制에 따른 長者優位 B. 均等分配	個人私財 認定하지않음

	韓　　国	北　　韓
4．父母扶養	A．長者責任 B．子息들 全部責任	扶養必要 없음 （老人은廢物）
5．継　　承	A．子息이 없으면 親戚中에서 養子를 択함 B．사위를 養子로 함	継承 認定하지 않음
6．祖上崇拜	A．長者의 義務 B．兄弟間의 義務	老人層에서만 겨우維持 젊은層은 全然無視

위의 表에서 南北韓을 比較해 보면 部落과 家族構造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国에서 A는 伝統的인 基層文化를 意味하고 B는 変化型으로 上層文化를 意味한다. 大部分은 이 두型이 混合되어 重層現象을 나타내기도 한다.

発展形態로 보면 A와 B는 共存하고 있거나 A가 B로 発展해 가거나 아니면 A가 B로 吸収해 가거나 한다. 즉 다음과 같은 公式이 成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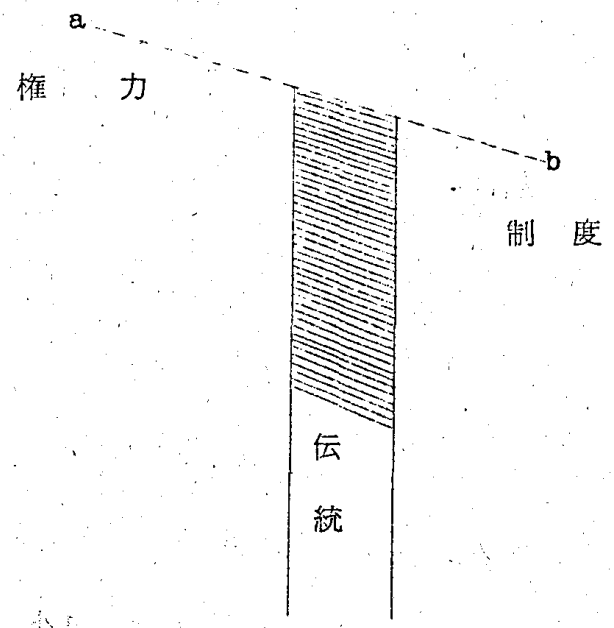
$A \rightarrow B$　　$A < B$

$A = B$　　$A > B$.

여기서 한가지 添言할 것은 A와 B가 위와 같은 公式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然的인 취세에 의한것이지, 国家나 制度上으로나 外部에 어떠한 圧力에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러한 圧力에 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있다.

한편 北韓은 上部 権力機関의 弾圧에 의해 伝統性이 차단되고 말았으니 図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民間信仰과 部落祭

(1) 韓国의 部落祭

우리나라가 歷史를 通해서 많은 外勢의 시달림을 받은 것만은 事実이지만 否定的인 面만 보지말고 肯定的인 面도 보아야 할 것이다. 過去 몇차례의 政権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政権이 들어설때 마다 文化政策에 있어서는 傳統性을 尊重하고 큰 変革을 일으키지 아니한 것은 政権維持에 있어서 그 底辺의 힘이 된 것만은 事実이다. 社会의 安定은 물론 権力層의 善政에 의한 政策도 우선해야 하지만 社会의 작은 単位인 部落 하나하나가 平和와 秩序와 倫理가 維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部落 하나하나가 마찰없이 잘 維持되고 있는 것은 무슨 理由일까 이 解答을 얻기 위해 部落의 構造와 더불어 그 要素를 研究 分析해야 하겠다.

筆者는 1976年度 国史科 学生들을 実習시키기 위해 江原道 溟州郡内 一名 가마골이라는 大関嶺 깊숙한 部落의 現地調査를 한 일이 있었다. 約 40戸 가량 되는 比較的 작은 部落이고 経済的으로도 富村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平温스러운 半農山村이라는 印象이 짙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며칠을 계속해서 過去로 부터의 村史를 聴取하는 가운데 이 部落이 秩序위계가 厳然하고 共同体로서의 協同이 外部의 간섭없이 잘 運営되고 있는 背景을 알아냈다. 우선 이 部落에는 行政的인 指導者로서 里長과 새마을 指導者가

있었다. 兩人이 모두 40代의 中年으로 機動力이 있고 信望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面이나 郡과 같은 上部機関과 部落間의 Communication을 위해서는 이 兩人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진다. 그러나 內容的으로 이 部落을 指導해나가고 維持해 나가는 것은 역시 表面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5～6名으로 構成되는 老人層이라는 것을 알았다. 里長이나 새마을 指導者나 獨自的으로 하려면 못할바는 아니지만 으례히 上部로부터 어떠한 指示를 받아와서 部落民의 協助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는 古老層에 諮問을 받는 다는 것이다. 部落의 一部 青年層에서 不滿이 있을 때는 古老들이 무마시키거나 中裁에 나선다. 일종의 諮問機関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어떤 組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選擧를 해서 任員들을 두는 것도 아니다. 한 部落에서 數十年을 살아온 老人들은 저녁이면 대개 한자리에 모여 때로는 娛樂을 하기도 하고 飮酒도 하고 座談도 하는데 이러는 가운데 部落의 問題點들이 提起되며 運営의 妙를 発見한다.

그러므로 部落의 運営에 있어서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行政的인 指導体制요 또 하나는 傳統的인 指導体制이다. 이 두개의 体制가 잘 Combination이 되는 것은 行政的인 指導体制가 傳統的인 体制의 権威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마찰없이 잘 運営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行政的인 指導体制가 항상 劣勢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두개의 힘이 対立状態에 있는것도 아니다. 共同協助的인 位置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前述했지만 老人層의 権威가 部落의 体制上 가장 上位에 있는 것은 물론 老人에 대한 敬老思想에서 오는 것만은 事実이지만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部落祭가 部落運営에 있어서 重要한 機能을 하고 있다는 点이다. 部落祭는 部落의 安寧과 無病과 豊饒를 祈願하는 祭儀로서 이것이 部落의 運命을 左右하는 神聖한 祭儀이고 보면 이것을 指導하는 老人層이야 말로 権威의 象徵이요 部落의 指導者라 할 수 있겠다. 前記한 老人層의 그룹이란 바로 이 祭儀式을 指導하는 그룹과 同一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部落이나 一年에 한번 혹은 二年에 한번씩 部落祭를 行한다. 이 祭儀는 우리나라에 先史時代로 부터 継承해온 것으로 일찌기 扶餘에서는 <迎鼓>라 했고 高句麗에서는 <東盟>이라 했고 濊에서는 傿天 馬韓에서는 蘇塗라 불리었다. 現在는 地方에 따라 呼称이 다르다.

中部地方에서는 都堂굿이라 하며 嶺南과 東海岸地帶는 別神굿 湖南地方에서는 堂山祭라 한다. 그러나 地方에 따라서는 山神祭 城隍祭라 부른다. 名称은 各各이지만 모두 部落祭인 것만은 事実이다.

慶南大学의 崔吉城教授는 이 部落祭가 우리 社会에서 運営維持되는 機能을 社会人類学的인 側面에서 다루고 있다.[21]

註21)崔吉城 「部落祭의 社会人類学的 機能」 『韓日中 部落祭의 比較研究』 東北亜細亜民俗学研究所 1977, pp.17-20

部落祭가 단순한 ritul collaboration만은 아니다. 経済的·政治的 協力이 함께 内包되어 있음이 注目되어야 한다. 어떤 経済学者는 部落祭와 같은 祭儀는 前近代的 非生産的 消費에 不過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別神굿과 같이 巨金 100余万원(1972年 老勿洞의 경우)의 規模가 되고 休業 外客接待등 消費一辺倒的인 것을 보면 経済的 損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否定的인 것만은 아니다. 祭費의 마련을 위해 数年씩 貯蓄하게 되고 外部 部落에 대해 자기 部落의 経済力의 表示를 위한 努力, Solidarity를 위한 協同心등은 결코 生産에 대한 誘因(Incentives)이 안된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短期 展望에서 部落祭가 損失이라고 보는데 反하여 長期展望에서 生産에 寄与함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部落祭를 行하기 위해서 祭儀 運営을 위한 組織이 産出 또는 強化되고 있음에 注目해야 한다. 그것은 社会構造를 反映하고 있기도 하다. 組織에는 個人의 status나 role(役割)이 드러나서 社会的 秩序가 明確하게 된다. 部落에는 部落 以外에도 生活共同体의 solidarity를 強化하는 要因이 많다. 家族·親族関係 行政組織 労動交換(품아시)·経済組織(契)등 많은 社会的 network나 関係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要因들이 共同으로 部落의 統合性을 強化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므로 部落祭는 信仰的인 面에서는 祖上崇拝의 発現이고 機能的인 面에서는 部落의 秩序 共同性의 発現이라는 両面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地方에 踏査를 나가 보면 部落祭가 잘 進行되고 있는 部落일수록 協同性이 強하고 生活面으로도 発展的이며 運営面에서도 優位에 있음을 実感할 수가 있다.

이러한 部落祭가 有史以来 伝統的으로 継承되어 내려오는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民族의 古代人들이 崇尚하던 祭天儀式과 関聯지어져야 할 것이다. 延世大学校의 柳東植教授는 古代 韓国民의 祭天儀礼가 가장 忠実하게 伝承된 것이 오늘날의 別神굿이라 前提하고 다음과 같이 説明했다.[22)]

古代天祭와 오늘의 別神굿이 그 外形上 비슷하지만 하나는 天祭요 하나는 山神 城隍祭라는 根本 性格은 어떻게 理解해야 하는가. 여기에 別神굿의 名称考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別神굿이 特別神祀의 준말이라는 説은 있으나 (李能和)보다 説得力이 있는 説은 붉神굿의 音変이라는 것이다 (崔南善). 붉神은 光明神이요, 곧 天神을 뜻한다. 이것이 "뱃신" "벨신" "별신"등으로 変化 口伝되어 왔으리라. 요컨데 別神굿은 古代 祭天儀礼의 単純伝承이다.

요컨대 우리 民族은 붉神을 崇尚했고 이것은 막연하나마 天神을 崇尚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日常生活에 이같은 思想이 心底에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註22)柳東植 「別神굿의 宗教的 特徴」『韓日中部落祭의 比較研究』 pp.3-8 (東北亜細亜民俗学研究所. 1977.)

이와같은 祖上으로부터의 祭天儀式이 継承되어 내려옴은 하나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廃止해야할 아무런 根拠도 없다.

(2) 北韓의 部落祭

한편 北韓 事情은 어떤가. 저들 共産主義者들은 한마디로 「宗教는 아편」이라는 슬로간 아래 모든 信仰行為를 根絶시키려고 했었다.

金日成은 1959年 「우리는 왜 宗教를 反対해야 하는가」라는 反宗教運動의 指針書에서 宗教人들이 宗教의 看板밑에 反革命的인 行為를 造作하여 宗教的 思想을 우리들 속에 扶植시키려고 企図하므로 이것과 徹底히 闘争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렇게 宗教弾圧과 同時에 1948年 国有化政策에 따라 宗教団体 財産(土地 建物)을 全部 몰수하였으며 6.25動乱 後 宗教建物은 大破된 것은 撤去하고 残有한 것은 改築하여 託児所 幼稚園 倉庫등으로, 寺刹은 休養所로 転用하고 있다. 宗教人과 그 家族은 소위 不純分子라 하여 弾圧하면서 社会 進出을 막고 監視의 対象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憲法에서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伝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信仰의 自由는 名目上 뿐이고 実際로 反対해야 할 宗教가 存在하지 않는 実情이다.[23)]

또 저들은 共産化 初期에는 한동안 祖上祭祀의 慣習을 根絶시키

註23)国土統一院 上掲書 pp.291-292.

려고 했었으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곧 이러한 조치는 완화되었고 現在는 放任하는 狀態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部落単位 門中単位의 祭儀式은 찾아볼 수 없이 根絶되었으나 家祭祀는 放任하는 実情이기 때문에 家族끼리 조촐하게 지낸다. 共産党에서도 祭祀에서 主人의 生存時의 思想性이나 業績등을 批判하고 反省의 機会로 삼으라고 指導해 오고 있다.

共産治下에서의 北韓에서 祖上祭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아이러니컬한 일은 党幹部들의 祭祀参与라는 것이다.

以前에 不幸한 처지에 있었던 祖上의 子孫들이나 行政権의 支配層에 있는 사람들에겐 祖上祭祀가 그들의 조상들이 소위 <人民의 편에 섰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호의 機会가 된다. 이런 点은 共産治下의 北韓에서 発見되는 하나의 새로운 慣習인 党幹部의 祭祀参与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即 祭祀에서 지내는 祖上祭祀에 전혀 関係가 없는 党幹部가 参席하여 祭祀가 끝난 後 飮福을 같이 하면서 그 祖上의 生時에 한 活動을 主題로 一대개는 그가 人民을 위해 무슨 일을 했었나 어떤 고난을 겪었나 등一 의 討論을 主題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慣習을 祖上이 겪는 試鍊으로부터 利得을 얻을 수 있는 一部層에 限定된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共産化 以前의 엘리트 階層 出身에게는 血縁에 基礎한 集団意識을 弱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即 後者의 경우 그들이 祖上祭祀를 계속하는 한 이는 反動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아예 제사지내기를 꺼려하며 親族間의 一体의 行事를 避

하는 傾向이다.[24]

(3) 韓国部落祭의 実際

1972年 여름 忠清南道 燕岐郡 大公里 部落을 찾았다. 이 部落은 車道로 부터 6 km 정도 山 깊이 들어간 오묵한 곳에 위置하고 있었다. 58家口의 小農인 곳이며 옛날부터 部落祭가 継承되어 내려온 部落이었다. 部落人口에 聖地가 있었다. 이 部落民들은 이 聖地를 가리켜 서낭당(城隍堂)이라고 했다. 聖地에는 主로 소나무가 우거졌고 풀이 무성했으며 마치 깊은 숲속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숲을 둘로 나뉘어져 그 사이로 동네로 들어가는 道路가 되어있다. 그리고 길 左右에 2.3개씩의 장승(長柱)이 서있었다. 그 장승 밑에는 또 한 솟대(蘇塗)의 긴 장대가 서있었다. 이숲은 神聖한 場所이기 때문에 사람의 出入이 禁止되었고 나무를 베는 일은 더욱이나 taboo였다. 만일 이 taboo를 어기면 神罰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解放前 어떤 사람(他部落人)이 이 부근에서 나무를 베었다. 그 때문에 그는 急病에 걸려 얼마후에 죽었다고 한다.

大公里에서는 閏달이 있는 해에 部落祭가 実施되고 있었다. 이것을 서낭제(城隍祭)라고 하며 陰暦의 正月14日 밤 9時頃부터 10時사이에 選択된 司祭者만이 장승과 솟대가 서있는 場所에 와서

註24) 李文雄 上揭書

祭祀를 지내는 것이었다. 司祭者의 選出은 約 一週日 前에 古老들과 役員들이 議論해서 결정한다. 選択하는 方法은 꽤 厳格했다. 우선 候補者가 될 사람의 집에 病者가 없어야 하고 喪中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基本方針이다. 일단 祭主로 選抜이 되었어도 妻가 月経中이면 스스로 辞退해야 한다. 말하자면 不浄한 者는 資格이 없다는 것이다. 司祭者는 祭主 2, 3名과 祝官 1名이 選抜된다. 이래서 本格的으로 祭祀의 準備에 着手한다. 選抜된 祭主들은 祭祀가 끝날 때까지 浄潔한 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들면 妻와 同寝해도 안되고 남에게 험담을 해도 안되고 祭物을 사러 市場에 가서 물건 값을 깍아도 안되고 비싸다고 투정해도 안된다. 그 위에 매일 아침 찬물에 沐浴을 해야 한다.

部落에서는 部落祭의 費用을 위해 家口마다 白米로 3升3合씩 모은다. 쓰고 남으면 部落의 費用에 넣었다가 다음 祭祀때 使用한다. 不足할 境遇에는 部落費用으로부터 補助한다. 祭主와 祝官은 왼쪽으로 꼬는 새끼를 準備해서 祭日 3日前에 聖地에 서있는 両쪽 솟대에 묶어 금줄을 친다. 그리고 솔잎을 새끼 줄에 끊아 놓는다. 솔잎과 솔잎 사이에는 조선종이를 가늘게 짜른것을 끊아 놓는다. 한편 이 금줄은 家口마다 大門에도 걸어놓는다. 옛날에는 部落入口에 있는 聖地에 금줄을 치면 祭祀가 끝날때 까지는 일체 他部落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했다. 지금도 他部落人으로 자기 집에 病者가 있거나 死亡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 이 금줄을 넘어갈수가 없다. 만일 이 部落에 不幸한 事件이 発生했을 경우는

祭祀期間 中 他部落人이 出入한 때문이라고 지탄을 받게 된다.

그리고 祭祀期間 中에 部落에 死者가 나오면 祭祀는 延期된다. 大公里에서는 이런 境遇 陰曆 2月1日 혹은 2月15日로 延期한다.

마침내 祭祀 当日이 되어 時間이 되면 祭主와 祝官은 事前에 준비된 祭物을 가지고 聖地인 서낭당으로 간다. 장승앞에 壇을 設備하고 그 위에 祭物을 놓는다. 大公里에서는 떡·술·명태·대추·밤·감 등이 놓여졌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祭物은 떡이다. 떡은 시루떡이며 이것을 만드는 집도 不淨이 있으면 안되고 事前에 選抜된다. 祭壇 両쪽에 촛불이 세워지고 불을 부친 다음 祝官이 祝文을 외운다. 그리고 一同이 큰 절을 한다. 다음은 燒紙를 한장씩 태운다. 燒紙는 朝鮮 종이로 좁고 길게 짤라 部落의 戶数와 数를 맞춘다. 燒紙를 한장씩 태우고 每家口마다의 無事를 祈願하는 것을 意味한다. 다른 部落에서는 個人的인 要請이 있는 사람의 燒紙만을 태우는 곳도 있다. 大公里에서는 一括해서 全戶数分을 태운다. 이 祭祀가 끝날때 까지 祭主와 祝官은 始終 部落에 不幸한 일이 発生 안되도록 伝染病이 流行안되도록 豊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祈願한다.

大公里의 한 老人은 特히 이 점을 強調했다. 即 우리 마을이 옛날부터 서낭제를 빠트린 적이 없이 꼭 제날에 祭祀를 올렸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고통 당한 때도 없으며 또 軍에 入隊한 젊은 이가 많으나 戰死者는 1名도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大公里는 信仰心이 돈독한 部落이라고 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같이 ① 숲을 서낭당이라 부르며 神聖視하고 있고 ② 장승이 聖地에 세워져 있었고 ③ 솟대가 장승 옆에 서 있다. ④ 그리고 每年은 아니었지만 定期的으로 祭祀가 挙行되었다.

이상의 諸点이 大公里의 信仰心을 立証하는 要素가 된다. 大公里처럼 서낭당 장승 솟대가 한 場所에 모여 部落祭를 挙行하는 部落은 国内에서도 典型的이며 이러한 곳은 많지 않다. 대개의 경우는 이것들이 各各 場所를 달리하고 있다. 서낭당은 山위에서 部落을 한 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普通이다. 또 장승은 部落의 出入口 그리고 部落内部에 몇곳 서있는 것이 보통이다. 솟대는 独立해서 서있는 경우도 있고 장승과 나란히 서있는 곳도 있다. 아마도 이것들은 원래 別個로 発生한 것이리라 짐작된다. 部落祭는 대개의 경우 堂祭를 먼저 지내고 다음에 솟대나 장승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祭祀를 지내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상이 直接 現地調査를 한 報告의 概括이다.[25]

(4) 北韓部落祭의 実際

北韓은 前述한 바와 같이 個人 家庭에서 略式 家祭는 있으나 部落単位의 部落祭는 現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그러나 多幸스러운 것은 1960年代 末에 北韓에서는 저들의 政治的 目的

註25) 崔仁鶴 『韓国の民俗』 pp.186-189. 第一法規 1974.

에 使用하기 위해 過去에 実行되었던 民俗一般에 걸친 資料들을 記録으로 남겨둘 必要性을 느껴 国家 베이스로 民俗文化를 調査시켰다. 그 一環으로서 『朝鮮의 民俗놀이』[26]가 나왔고 『文化와 풍습』[27]이 出版되었다. 前者는 다음 章에서 다시 취급되겠으므로 여기서 論外로 한다. 後者는 特히 北의 富寧郡, 会寧郡, 遊仙郡, 鍾城郡, 穩城郡, 慶源郡, 度興郡 一帯에 흩어져 있는 一名 「재가승」部落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部落들에 대한 民俗調査를 実施한 報告書이다. 이 調査는 1956年 7月부터 始作해서 1958年 12月까지 사이에 進行되었고 특히 이 報告書의 資料들은 1958年까지의 것이라는 것을 序言에 添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재가승部落에 있어 제3章 家庭 社会生活 風習과 精神文化라는 題下에 「4. 仏教信仰, 部落制, 기타 미신」이란 項이 있었다. 이 안에서 部落制에 関한 部分만 略述해 본다.

山치성… 山치성에는 정초 산치성과 10월 산치성이 있었다. 이것은 함경북도의 어떤 地方에서는 府君치성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地方에서는 属神祭라고 하였다. 어떤 部落에서는 정초 산치성의 準備로서는 찹쌀, 쌀, 콩을 거두어 떡, 술, 두부를 만들었다. 술빚는 집은 정결하고 흐리지 않은 집이라야 하며 빚는 사람도 눈

註26) 서득창 『조선의 민속놀이』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실. 평양, 1964. (国土統一院 所蔵)

27) 황철산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 <재가승부락>의 문화와 풍습』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총서제3집. 평양. 1960. (国土統一院 所蔵)

이 흐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 사람이 죽은 집이나 짐승을 잡은 집은 흐려서 안되며 동물이 죽은 것을 보았거나 피를 본 사람은 흐려서 안된다고 하였다. 또 이 때에 쓰는 돼지는 수컷이라야 하며 암컷은 山神이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치성 場所는 이 部落에서는 절당 후원이었다. 술과 떡, 두부를 가지고 복술과 함께 노인과 어른으로서 한 집에서 한 사람씩 가서 복술이 굿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을 하면서 당년에 부락내에 질병이 없고 農事가 豊作되어 全 部落이 安樂太平하기를 빌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 部落에서는 過去 이 部落에서 스님노릇과 복술 노릇한 두 個人 神을 위하였다. 산치성에 個人神까지 위하는 것은 部落마다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이것으로서 이 部落들이 過去에 얼마나 우두머리를 尊敬하였으며 그를 中心으로 하고 단결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山에서 내려와서 술과 떡을 우선 음복하였다. 산에 가서 치성하는 사이에 집에서는 돼지를 잡아 생체로 귀신을 위한 다음에 삶아서 밖에 차려놓고 복술이 굿을 하였다. 마지막에 돼지고기를 나누어 놓고 家族들이 밥을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부락내에 손님이 왔으면 共同으로 손님의 分을 따로 내고 복술에게는 제일 좋은 고기로 많이 준 것이었다. 이렇게 돼지를 잡고 삶은 집을 소집이라고 하였는데 소집은 매년 윤번으로 定하였다. 이와같이 부락제에 복술이 주역격으로 되어 山靈歌, 明堂経, 地神経등을 외우면서 지냈다는 것은 이 부락들의 部落祭에는 儒教的 形式(祭官을 定하고 祝文을 읽는)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意味한다.[28]

이 밖에도 山祭·大山鬼·배자(배장) 10월 상산제 등의 記録이 있으나 지면 関係로 省略한다.

이 報告를 보니 어운部落에서는 그리고 이 地方에서는 比較的 伝統的인 祭儀式을 1950年代까지는 풍습대로 継承하고 있었다는 事実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祭儀式의 内容에 있어서도 韓国과 大同小異하다. 어운部落의 경우 복술(巫堂)이 참여하고 山祭儀가 部落単位로 挙行한다는 点에서는 韓国의 堂山祭 城隍祭 山神祭의 類型에 속한다. 무당이 개입하는 것은 韓国도 대개 크게하는 곳과 世襲巫가 있는 東海岸地方이나 湖南 嶺南地方에서는 으례 巫가 祭儀에 主役割을 한다. 北韓의 어운 部落의 部落祭 規模는 비록 작기는 해도 江陵 端午祭의 大関嶺城隍祭와 同類의 것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말한 것 처럼 江陵 것은 儒教的인 式이 가미되었고 어운 部落 것은 儒教式이 가미되지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토록 伝統的인 部落祭가 지켜내려오던 이곳에서 1960年代에 들어서서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탄압과 강권이 作用하지 않는한 쉽사리 자취를 감출수가 없는것이 伝統的인 民間信仰의 特性이다.

여기서 北韓当局이 部落祭와 같은 民俗信仰을 여하히 認識하고

註28) 황철산 上掲書 p.114.

있는지 알아보자. 같은 저희들의 報告書에서 引用한다.

解放後 이 部落들은 우리 당의 系統的인 선전 교양 事業과 自身들의 思想闘争을 通하여 그 思想 意識이 비상히 再考됨에 따라서 노인들 까지도 仏教와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다. 現在 이 部落 사람들은 過去에 仏教와 인연이 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 이 部落들에 대한 仏教的 残在와 샤마니즘적 미신 行事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금후도 계속 꾸준한 노력을 요함은 물론이다. 그를 위하여 過去 이 부락들에 있을 仏教 信仰 仏教意識과 샤마니즘적 미신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미신 선전 교양 사업에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므로서 宗教 미신의 잔존을 근절하는 투쟁에서 구체성과 실질성을 띠게 하는데 도움으로 됨과 동시에 과거 이 부락들의 종교 미신과 관련한 민속자료의 정리 사업으로도 된다.[29)]

이러한 저들의 伝統文化에 대한 그릇된 의식은 마침내 우리 祖上으로 부터의 基層文化를 파괴시키고 人間의 情緒까지를 둔화시켜 人間을 다만 노동자로서의 道具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民 俗 芸 術

봉산탈춤, 北青獅子놀이, 줄다리기 農樂 강강수월래 등등 명절때

註29) 황철산 上掲書 pp.109-111.

나 일정한 時期에 부락민들에 의해서 行해지는 이러한 民俗的 行事를 총칭해서 우리는 <民俗芸術>이라 하고 北韓에서는 <民俗놀이>라고 한다. 우선 名称上의 差異에 대해서 言及하겠다.

원래 이러한 民俗的인 行事는 現時点에서 나타나는 성질, 機能만을 가지고는 그 性格을 완전히 理解하기는 어렵다. 時代的인 変化過程 나아가서는 原初形態까지 규명해서 発生 機能을 発掘해야 올바로 理解할 수가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古代 우리 部族들이 祭天儀式을 할 때 모습을 文献을 통해서 考察해 보면,

扶余 以殷正月祭天 国中大会,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三国志 魏志 東夷伝)

高句麗 其民喜歌舞 国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戯…… 以十月祭天…(魏志東夷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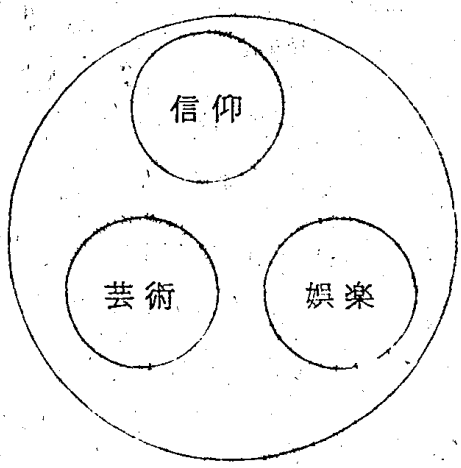
濊 常用十月節祭天 昼夜飲酒歌舞 名之為舞天(魏志 東夷伝)

馬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飲酒……(魏志 東夷伝)

(…表記는 筆者添記)

이상의 文献에서 보다시피 国中 儀式때 扶余나 高句麗나 濊나 馬韓이나 共通的인 것은 반드시 歌舞가 併行했다는 사실이다. 이 歌舞를 우리 말로는 놀이(遊)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語義인 논다는 놀이가 아니라 神에게 告한다는 뜻이 있는 우리의 古語인 것이다. 그 証拠로서는 言語学者 특히 比較言語学者들은 우리말이 日本말의 基低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金思燁) 그중에서 祭儀式에 관한 用語들은 거의 우리의 말이 건너간 것이라고 主張

한다. 우리말의 놀이는 일본말의 ノル(노루·能良)인데 이 말의 뜻은 「告·宣」이다. 다시 이것이 ノリコト(노리고도·能良戸言)가 되면 「祝詞」란 말이 된다. 우리 말의 놀이(遊)의 원래 意味는 祝詞요 따라서 歌舞←→놀이←→祝詞라는 公式이 成立된다. 여기에서 宗教的, 信仰的인 部分이 脫落되면 거저 오늘날의 놀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탈춤과 같은 行事·農楽과 같은 行事들은 모두가 宗教的 儀式의 한 레퍼토리로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古代의 宗教的 儀式은 하나의 綜合芸術이라고 부른다.



이 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行事에는 信仰性과 芸術性과 娯楽性이 모두 混合되어 있으나 古代에는 信仰性이 더욱 強했던 것이었는데 時代가 갈수록 信仰性이 弱해지고 어떤 것은 芸術性이 強해지고 어떤 것은 娯楽性만이 남게된다.

따라서 오늘날 무엇이라고 名称할 것이냐 하면 옛날의 原初形態

를 생각하면 <民俗놀이>가 正当하고 오늘날의 現象으로 보면 <民俗芸術>이라고 보는것도 틀림은 아니다. 다만 <民俗놀이>라고 할때는 놀이에 대한 正当한 語義를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그러나 北韓에서 発刊된 『조선의 민속놀이』는 그러한 意味에서 使用한 것이 아니라 内容에 있어서 윷놀이 장기 바둑 고누와 같은 것도 포함시킨 것을 보면 역시 recreation이라는 意味에서 使用한 것 같다. 그렇다면 北韓에서는 農楽이나 獅子놀이나 모든 것을 宗教的인 側面에서가 아니라 娯楽的인 側面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民俗芸術을 根本的으로 잘 못 理解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北韓에서는 民俗芸術 하나 하나에 대해 어떻게 解釈하고 있는지 몇가지 例만을 들기로 한다.

(1) 農 楽

우리나라 農楽은 芸術的이며 민족적 품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農楽은 특히 어디까지 조선적인 정서미를 풍부히 가지면서 우리 인민의 낙천적이며 전투적 기백을 잘 반영하고 있다.[30]

그러나 가장 重要한 核心이 빠졌다. 農楽이 전투적 기백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農楽이란 祭儀에 있었던 行事로 除厄의 呪術的 機能이 컸다는 점이 가장 重要하다. 그래서 지금

註30)서득창 上掲書 p.13.

도 部落祭가 있을 때나 혹은 명절때 집집마다 다니며 農樂을 하면서 地神밟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理由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또 이 農樂을 一般에게 그릇 認識시켜 저희들의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고 있음을 다음 引用에서도 알 수 있다.

농악소리를 한번 듣게 되면 누구나 절로 벅찬 환희감과 용솟는 힘을 느낀다. 또한 농악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하는 인민들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 끌려 들게 함으로써 집단의 단합과 용감성을 배양한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 농악소리에 압도되어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 공포에 떨게 된다.

물론 農樂이 協同과 勞動의 效果를 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만은 事実이지만 그렇다고 저들의 目標量에 生産을 達하기 위해 農民들의 作業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農樂을 그릇 認識하는 것은 우리의 固有民俗을 짓밟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分野의 解釈이 일목요연하게 生産高를 높이기 위해 民俗芸術이 創作된 것처럼 表現되어 있다.

(2) 仮面劇

仮面劇에 있어서도 저들은 이같이 説明한다.

탈놀이가 다만 놀이 때에 흥을 돋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는 싸움터에서 그 어데서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투쟁에로 고무하며 용감성과 영웅심으로 끓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

다는 것을 말해 준다.[31]

얼토당토 않는 解釈이다. 원래 仮面의 発生原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그같은 過誤는 犯하지 않했을 것이다. 기왕 仮面이야기가 났으니 Bēdouin의 説을 잠시 紹介한다.

① 実用的인 目的에서 생긴것, 防衛와 秘密의 安全때문에 自己隠蔽를 하려고

② 本能的인 目的으로 생긴것。快感이나 美観 혹은 性的인 目的인 것

③ 信仰的인 目的으로 생긴 것。神, 神話上의 英雄, 祖霊, 精霊의 化現때문에 또 그것들의 擬態때문에 呪術때문에 使用하는 것

④ 識別때문인 標識으로서。

⑤ 芸術的인 것。이것은 起源은 오히려 信仰的인 것에 있다고 생각됨.

⑥支配의 手段으로서의 仮面[32]

이상 6種類中에서 우리나라의 탈춤이 대개의 경우 独立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神事에 併行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③과 ⑤의 類型에 屈한다는 것 쯤은 理解할 수 있다.

註 31) 서득창 上掲書 p.31.

32) Bēdouin, Jean-Louis, Les masqu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61.

(3) 강강수월래

특히 全羅南北道에서 正月15日이나 端午때 마을 婦女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며 일제히 강강수월래의 노래를 先唱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다.

이 가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가무들에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근로인민들의 生産활동과 가정 및 사회생활의 이모저모를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후렴에는 반드시 경각성을 높이라는 뜻을 가진 ≪강강수월래≫를 붙였는 바, 이것을 통하여 이 놀이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강강수월래라는 말의 뜻을 두가지로 해석하는 바, 그 하나는 한자로 「強羌水越来」 즉 왜적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뜻으로, 따라서 경각성을 높이라는 것이라 한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강강>이 순수한 조선말로서 <강>은 <주위 ; 원>이라는 뜻의 호남지방 방언이며, <수월래>는 <술래> 즉 <순라>(巡邏)에서 온 것이라 한다. 이 말은 주위를 경계하라는 뜻이며, <강강>은 <강>을 강조한 것이라 한다. 주 해석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여기서 왜적의 침해로 부터 조국을 수호한 우리 조상들의 투쟁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3]

여기까지의 解釈은 그런대로 덮어두고 다만 저들은 강강수월래의 노래 그 자체에서 어떤 発生原因을 찾으려고 했지 강강수월래가

註33)서득창 上掲書 pp.38-39.

正月15日이나 端午때 行해지고 있다는 事実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事実 노래内容도 重要하지만 이러한 名節때에 婦女子들이 하는 行事라는 点에서 더 研究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韓国에서도 이 강강수월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定説이 없다.

노래内容만 하더라도 후렴인 강강수월래만 같다 뿐이지 노래 内容은 몇십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는 支配者와 侵略者에 대한 抵抗的인 것도 있고, 덧없는 人生을 노래한 것도 있고 이별이나 慕情을 부른 것도 있다. 또 労農作業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 달맞이에 관한 것 등 여러가지다. 이렇게 많은 歌詞中에서 어느 것이 本来의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一説로는 古朝鮮의 扶余의 年中行事인 迎鼓에서 由来되었다고도 하지만 分明하지는 않다.

民俗芸術이란 것은 内容이 多様하고 複合的이어서 単純하게 解釈하기가 어렵고 全体的인 立場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意味를 알 수가 없다. 즉 関聯없는 諸要素를 綜合해서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한 마디로 「우선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노동의 즐거움과 생활의 기쁨을 반영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일터에서는 사람들의 일을 더 흥겹게 하였고 나라를 보위하는 싸움터에서는 모두가 단결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하였다」라고 総評하고 있다. 참뜻은 왜곡하고 [34] 民衆에게 거저 労動과 収獲만을 노리는 民俗芸術이고 보니 民俗芸術이 오히려 北

残34)서득창 上掲書 p.2.

韓同胞에게는 괴로운 存在가 아닐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北韓에 있어서의 文化政策을 断片的으로 検討해 왔지만 現体制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固有文化의 伝統性을 維持 継承하리라는 期待는 갖기 어렵다. 그 理由로는 ①共産主義는 宗教를 非生産的이며, 反革命的이라고 경원하며 ②民間信仰을 迷信이라 하여 말살하는 동시에 ③血縁的인 家族主義를 破壊하기 때문에 信仰과 家族을 主軸으로 해서 発展해 온 우리의 伝統文化가 北韓에서 제 구실을 하리라고는 期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들은 部族社会서부터 血縁中心이었다. <집안>思想은 社会主義가 가장 嫌悪하는 敵이며, 이 나라에 共産主義가 存在하는 限, 우리의 伝統性은 維持하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確実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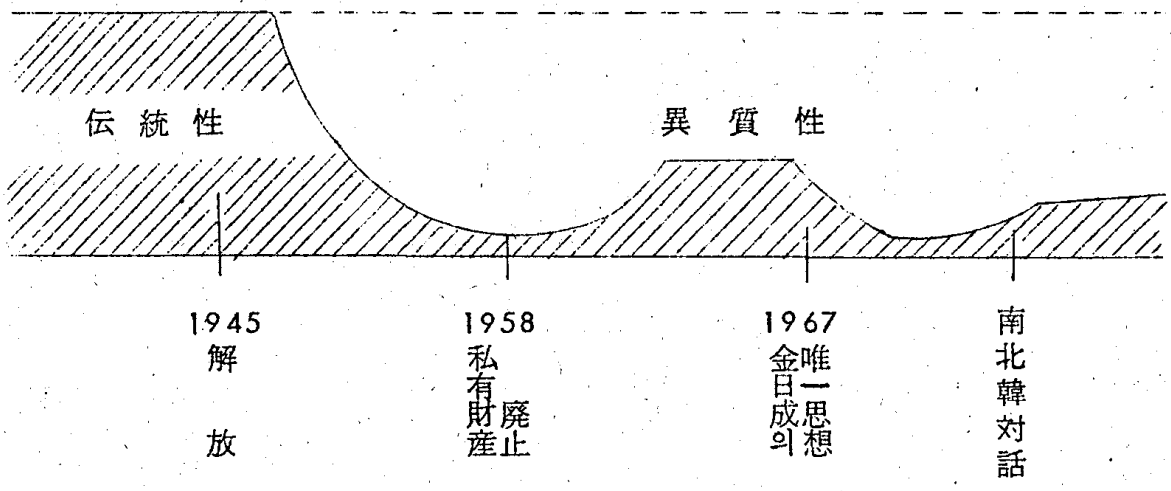
古代社会에 있어서 新羅가 大部族을 統合하여 聯合国家形式을 취했으나 部族은 엄연히 存在했으며 各部族은 自治的으로 運営했었다. 점차로 国家라는 기틀이 잡혀감에 따라 国土가 統一이 되었으나 最少単位인 部落은 血縁(門中)中心의 強한 Power를 維持해 내려왔다.

우리나라의 古代로부터 継承해 오는 모든 行事나 文化的 要素가 血縁을 中心으로 하는 祖霊에 関한 경배信仰으로 集約할 수 있다. 그리고 門中의 団結과 和親을 主題로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数千年을 지켜오는 伝統을 北韓의 金日成은 自己의 神格化를 위해 파괴시키고 말살하려고 드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同胞들도

그리 쉽게 順応할 리가 없다. 여러 資料들을 綜合해 보면 역시 反発이 있고 不作用이 있으므로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 보다가도 풀어놓거나 하여 一定한 文化政策의 基準이 없이 갈광질광한 事実을 알 수가 있다.

다음 表가 그것을 如実히 나타내고 있다.

<北韓의 伝統·異質濃度表>



그러므로 韓国은 社会·文化政策面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伝統文化에 대한 分析研究를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体系化 하므로서 北韓同胞들에게 伝統文化의 鄕愁의 広場을 提供하는 対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강강수월래

특히 全羅南北道에서 正月15日이나 端午때 마을 婦女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며 일제히 강강수월래의 노래를 先唱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다.

이 가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가무들에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근로인민들의 生産활동과 가정 및 사회생활의 이모저모를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후렴에는 반드시 경각성을 높이라는 뜻을 가진 ≪강강수월래≫를 붙였는 바, 이것을 통하여 이 놀이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강강수월래라는 말의 뜻을 두가지로 해석하는 바, 그 하나는 한자로 「強羌水越来」 즉 왜적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뜻으로, 따라서 경각성을 높이라는 것이라 한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강강>이 순수한 조선말로서 <강>은 <주위 ; 원>이라는 뜻의 호남지방 방언이며, <수월래>는 <술래> 즉 <순라>(巡邏)에서 온 것이라 한다. 이 말은 주위를 경계하라는 뜻이며, <강강>은 <강>을 강조한 것이라 한다. 주·해석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여기서 왜적의 침해로 부터 조국을 수호한 우리 조상들의 투쟁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3]

여기까지의 解釈은 그런대로 덮어두고 다만 저들은 강강수월래의 노래 그 자체에서 어떤 発生原因을 찾으려고 했지 강강수월래가

註33)서득창 上揭書 pp.38-39.

正月15日이나 端午때 行해지고 있다는 事実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事実 노래内容도 重要하지만 이러한 名節때에 婦女子들이 하는 行事라는 点에서 더 研究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韓国에서도 이 강강수월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定説이 없다.

노래内容만 하더라도 후렴인 강강수월래만 같다 뿐이지 노래 内容은 몇십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는 支配者와 侵略者에 대한 抵抗的인 것도 있고, 덧없는 人生을 노래한 것도 있고 이별이나 慕情을 부른 것도 있다. 또 労農作業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 달맞이에 관한 것 등 여러가지다. 이렇게 많은 歌詞中에서 어느 것이 本来의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一説로는 古朝鮮의 扶余의 年中行事인 迎鼓에서 由来되었다고도 하지만 分明하지는 않다.

民俗芸術이란 것은 内容이 多様하고 複合的이어서 単純하게 解釈하기가 어렵고 全体的인 立場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意味를 알 수가 없다. 즉 関聯없는 諸要素를 綜合해서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한 마디로 「우선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노동의 즐거움과 생활의 기쁨을 반영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일터에서는 사람들의 일을 더 흥겹게 하였고 나라를 보위하는 싸움터에서는 모두가 단결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하였다」라고 総評하고 있다. 참뜻은 왜곡하고 [34] 民衆에게 거저 労動과 収獲만을 노리는 民俗芸術이고 보니 民俗芸術이 오히려 北

残34)서득창 上掲書 p.2.

韓同胞에게는 괴로운 存在가 아닐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北韓에 있어서의 文化政策을 断片的으로 検討해 왔지만 現体制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固有文化의 伝統性을 維持 継承하리라는 期待는 갖기 어렵다. 그 理由로는 ①共産主義는 宗教를 非生産的이며, 反革命的이라고 경원하며 ②民間信仰을 迷信이라 하여 말살하는 동시에 ③血縁的인 家族主義를 破壊하기 때문에 信仰과 家族을 主軸으로 해서 発展해 온 우리의 伝統文化가 北韓에서 제 구실을 하리라고는 期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들은 部族社会서부터 血縁中心이었다. <집안>思想은 社会主義가 가장 嫌悪하는 敵이며, 이 나라에 共産主義가 存在하는 限, 우리의 伝統性은 維持하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確実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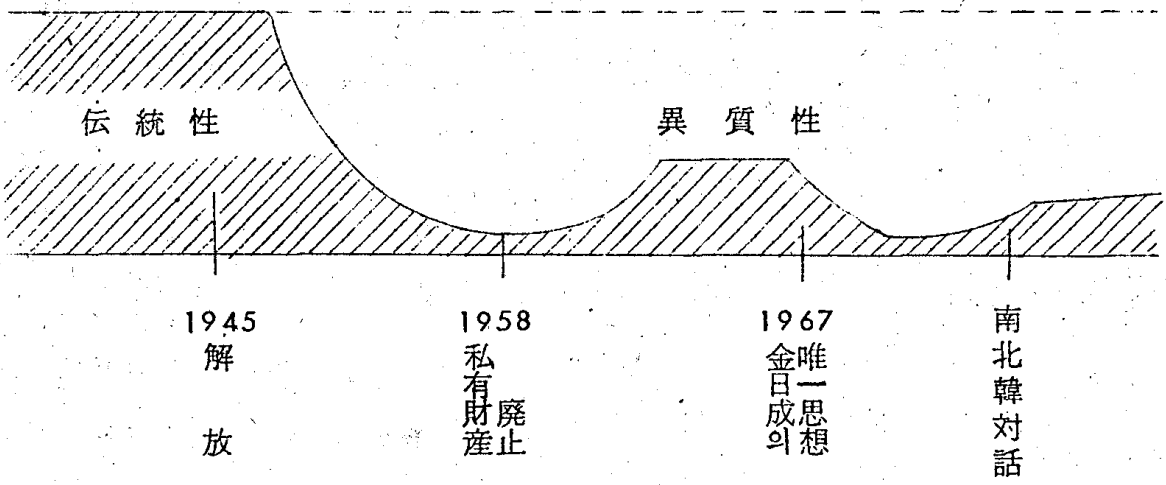
古代社会에 있어서 新羅가 大部族을 統合하여 聯合国家形式을 취했으나 部族은 엄연히 存在했으며 各部族은 自治的으로 運営했었다. 점차로 国家라는 기틀이 잡혀감에 따라 国土가 統一이 되었으나 最少単位인 部落은 血縁(門中)中心의 強한 Power를 維持해 내려왔다.

우리나라의 古代로부터 継承해 오는 모든 行事나 文化的 要素가 血縁을 中心으로 하는 祖霊에 関한 경배信仰으로 集約할 수 있다. 그리고 門中의 団結과 和親을 主題로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数千年을 지켜오는 伝統을 北韓의 金日成은 自己의 神格化를 위해 파괴시키고 말살하려고 드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同胞들도

그리 쉽게 順応할 리가 없다. 여러 資料들을 綜合해 보면 역시 反発이 있고 不作用이 있으므로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 보다가도 풀어놓거나 하여 一定한 文化政策의 基準이 없이 갈광질광한 事実을 알 수가 있다.

다음 表가 그것을 如実히 나타내고 있다.

<北韓의 伝統·異質濃度表>



그러므로 韓国은 社会·文化政策面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伝統文化에 대한 分析研究를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体系化 하므로서 北韓同胞들에게 伝統文化의 鄕愁의 広場을 提供하는 対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

談話會結果報告

— 北韓의 社会文化 実態를 中心으로 —

日 時 1977年 11月 8日 午後1.30-4.30

場 所 国土統一院

参加者 曺 淮 煥(国土統一院)

崔 炳 輔(〃)

金 淳 培(〃)

崔 仁 鶴(談話会 参加者)

김 용 구(〃 〃)

孔 탁 호(〃 〃)

朴 洪 根(〃 〃)

談話会의 趣旨

本 談話会 記録은 筆者의 報告書 作成에 있어서 内容面에 補完資料의 一環으로서 国土統一院 社会·文化研究官室이 마련해 준 것이다.

崔·오늘 이처럼 참가해 주어 대단히 감사하다. 自由스러운 雰囲気에서 談話가 進行되기를 바란다. 韓国의 伝統文化를 나는 두가지 類型으로 본다. 하나는 先祖로부터 継承되며

一般이 所有하고 있는 普遍的 文化, 이것을 基層文化라 하고, 이에 比해 外部로부터의 文化 혹은 制度上으로 形成되어 一般에게 받아들여진 文化, 이것을 表層 혹은 上層文化라고 断定짓고 싶다. 만일 이 두가지 文化類型의 設定이 용납된다면 韓国은 이 두가지 類型이 고루 継承 保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韓国의 実情에 比해 北韓의 文化는 어떠한 実情에 있는지 우선 金용구氏부터 発言을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

金·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에는 伝統的인 基層文化가 全面 抹殺되고 있다. 그 要因은 金日成 一人 独裁의 個人偶像化와 그의 家系를 偽装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歴史를 날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基層文化를 그대로 둔다면 金日成 偶像化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한 그의 族閥体制가 維持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 모든 文化政策은 上部権力層에서 決定되어 일단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下部機関으로 下達되어 実行한다. 다시 말해서 北韓의 文化란 金日成 個人의 생각에서 만들어져 施行되기 때문에 伝統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金日成의 教示가 없이는 하나라도 存在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北韓의 文化施策의 過程을 보면 3段階로 보아야 되는데 첫段階는 모든 私有財産을 廃止한 1958年 10月까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은 金日成이가 「唯一思想」이란 책자를 낸 67年 6月 4日까지를 2段階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부터 現在까지를

三段階로 봐야 하겠다. 그런데 私有財産을 廃止한 58年까지의 一段階에는 어느 程度 過去로부터 継承해온 伝統文化가 存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民俗놀이 民俗芸術등이 적지 않게 유지되었다. 그 다음 58年以後 67年까지는 北韓실권을 쥐고 있는 박금철. 김창만等組織과 宣伝을 담당하는 実権者의 입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論義의 対象으로 하고 있는 民俗芸術分野의 継承文化는 気運이 나타났다. 예컨데 咸北의 民俗놀이의 특징이나 또는 유지(古老)들과 협조해서 그 地方의 향토사를 発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芸術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指示를 했다. 그러나 66年 末期에 와서는 封建復古主義라는 지탄을 받게되고 金日成에게 욕을 먹고 탈락되었는데 박금철이 때문에 한때 박지원이나 鄭茶山의 実学思想의 정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金日成의 비위에 거슬려 67년 박금철은 숙청이 되었다.

崔・北韓에서는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해 그가 気分이 내키는대로 만들면 시행하는 文化라고 한다면 그것은 上層文化(表層)도 아니라고 본다. 내가 말하는 上層文化란 例를 들면 우리나라의 結婚制度가 너무 形式이 複雑하고 経済的으로도 負担이 되니 現実에 맞도록 簡素化하기 위해 与論을 中心으로 制度化해서 国民이 따라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인데 北韓은 与論이고 뭐고 없이 金日成의 기분에 依해 없애고 만들고 하면 이것은 上層文化도 아니요, 全的으로 異質的인 것이

아닌가.

金·그렇다. 어떻든 過去로부터의 伝統을 多少 修正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完全히 말살한다는 것이다. 예를 또 들겠는데 北韓에도 58年인가 59년까지는 무당춤이 있었다. 즉 53年에서 56年 사이에 최승희가 안무, 연출한 사도성의 ? 란 것은 一種의 무당춤이다. 이것은 三国時代를 統一한 김유신, 김춘추의 화랑도와 계급투쟁을 배경으로 만든 것이었다. 당시 박창욱은 이 춤을 대단히 讃揚을 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것도 自己 마음에 거슬린다해서 廃止시켰다 또 国楽에 있어서는 서울서 올라간 안기옥(가야금의 名手)이 ~~가 平壌音楽大学~~에서 판소리를 장려시켰는데 이것도 金日成귀에 거슬려 61年에 없애버렸다. 그 理由인즉은 판소리에 濁音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青少年들은 清音을 좋아하는데 판소리에서 濁音을 없애라고 하니 이게 可能한 問題인가. 또 64年에서 67年사이에 金素月의 詩가 普及되었다. 그래서 박금철의 指示에 依해 金素月의 고향인 평북 영변에 銅象까지 세웠다. 그러나 박금철이 粛清될 때 이 銅像까지 없어졌다.

朴·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들이 伝統文化를 国家単位로 開発하는 양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용단의 공연을 보아도 농악같은 것을 規模가 크게 하는 것이라든가 아무튼 北韓에서는 우리와 같이 地方사람들이 自己 地方의 固有한 民俗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것 같다.

金· 55年, 56年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地方에서는 비밀리에 伝統文化行事를 했었다.

孔·제가 学校다니다가 故郷에 가 보니까 그때가 58年 北青의 사자놀이가 있었는데 그 後 上部의 指示에 依해 中断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67年 金日成 教示에서는 옛날 우리 風俗에서 배울 것은 없다, 옛날 우리 風俗을 過大評価할 必要도 없고 過少評価할 必要도 없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批判的인 立場에서 받아들여라고 했다. 金先生께서는 抹殺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론 一部 保有하고 있다고 본다. 너무 없애다 보니 反撥도 나오고 不平도 있고 해서 약간 누그러뜨리는 形便에 있다. 68年 秋夕에 金日成이가 휴가를 주었다. 한 指導員이 휴가를 얻어 自己 古郷인 요덕郡에 갔더니 불도저로 공동묘지를 싹 밀어 버려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指導員이 동네 老人들의 不満을 듣고 돌아가서 金日成에게 報告했다. 그러자 열흘만에 요덕郡의 군단부장, 社会安全部長 모두 해임이 됐다. 너희는 祖上도 없느냐 하며 호통을 쳤다. 그 前에는 墓같은 것은 主人의 許可도 없이 밀어버리고 했지만 이때부터 묘의 保存이 생겼다. 건축관계로 移葬시킬 때는 墓主를 찾아 승낙을 받고 移葬시키기로 됐다.

崔·기왕 墓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곁들여서 北韓에서 葬礼式은 어떻게 挙行하는지.

孔·70年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3日葬을 했었다. 71年에 가서

새우(함경도 方言으로 상여)를 없앴다. 상복은 여전히 베옷을 입었고 3年상도 했었다. 그러나 小喪, 大喪은 없애라고 했다. 喪房을 만들고 죽은 사람의 写真을 걸어놓고 보는 것은 더욱 死者를 거억나게 해서 나쁜것이니 죽은 날에 祭祀는 지내되 喪房은 차라리 말자고 했다. 祭祀때는 哭은 하지 말고 그저 죽은 사람이 다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崔·金日成이가 死者를 더욱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忌祭는 지내되 3年喪은 하지 말라고 指示도 했지만 정말 이게 철저히 지켜졌나 아니면 一部는 3年喪을 했는지.

金·孔·農村에서는 每日 밥을 떠 놓는데가 많았다.

朴·나는 故鄕이 咸北 城津인데 우리마을은 漁村이었다. 우리가 자랄 때에는 海辺에서 部落祭를 했고 마을 공동으로 돼지를 잡고 全体가 참가해서 祭祀했다. 가을이 되면 언덕(山쪽)에 가서 地神祭라는 것을 지냈다.

崔·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家祭때 젊은 層의 參加度는 어떤지.

孔·젊은 層은 參加하지 않는다 젊은 層은 金日成의 指示에 따르고 있다.

朴·그러니까 젊은 層에게는 벌써 唯物思想이 틀어 박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崔·우리나라에서는 正月이나 秋收後에 동네単位로 部落祭를

하는데 北韓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祭儀式이 있었는지.

孔·나는 본 일이 없다.

崔·해방前의 報告書를 보면 北韓에도 이러한 部落単位의 部落祭가 盛行했었는데.

孔·나는 記憶이 없다.

崔·그럼 解放과 동시에 北韓에서는 없어졌다고 보아야겠군.

金·朴·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崔·무당은 언제까지 있었는가.

金·내가 알기로는 56,7年까지는 있었다.

崔·무당이 없어진 것은 民間이 必要없다고 하니까 없어진 것인지 弾圧에 依해 없어졌는지

孔·弾圧에 依해 없어졌다. 무당도 정치 보위부의 감시를 받았으니까.

崔·무당들이 무당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는가.

金·韓国처럼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가지면서 굿을 한다. 돈을 받으며 한 것은 아니었다.

崔·젊은 層의 무당에 대한 態度는/

孔·完全히 미신으로 認定한다. 우리가 中学校때 미신단지라 해서 꺼내다가 돌로 깨고 했다.

崔·孔先生이 中学校때가 몇 년도였는가/

孔·56年이나 57年경이다.

崔·그럼 56,7年 경까지도 집집에는 조상단지가 있었다는 말인가/

孔·있었다.

崔·그러고 보니 家內에서의 民俗文化는 그런대로 維持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孔·金·朴·그렇다.

崔·그렇다면 部落単位의 것이 없어진 것은 弾圧만이 理由가 아닐텐데 또 다른 理由는?

孔·官製의 모임이 너무 많았다.

金·내가 結婚後 석달만인 56年 10月에 소환되어 3달 동안 밀봉 교육을 받는데 내처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자 장모가 점을 치러갔다 와서는 사위와 헤어질 팔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58년까지는 극비리에 점쟁이도있었다고 할 수 있다. 평양시내에서는 有名한 점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다가 개괄적으로 보면 抹殺이지만 部落的으로는 아직도 残存하는 要素들이 있다고 하겠다.

崔·다시 한번 確認하겠는데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계층이 자취를 감춘것은 一般이 미신이라고 해서 必要로 하지 않아서 또는 弾圧에 依해서 北韓의 경우 두가지가 다 作用하겠지만 어느 쪽이 더 比重이 큰가.

孔·金·그것은 물론 弾圧쪽이 더 比重이 크다. 왜냐하면 굿을 하다 발각되면 安全部에 당장 볼잡혀 간다.

崔·나는 지금 64年度 평양의 군중문화 출판사에서 発刊된 「조선의 民俗놀이」라는 冊을 統一院에서 빌려 참고하고 있는데

伝統文化를 無視하는 北韓에서 이러한 책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무슨 理由일까.

金·1964年 出板이면 아마 내가 말한 박금철의 文化장려때 発行되었다. 58年부터 60年初까지 北韓에서는 마을対抗 축구대회가 있었다. 61年 2月 7日부터 20日까지 金日成이가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가서 현지 지도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金日成이가 청산리 教示라는 것을 示達했는데 農村의 基本은 農事 잘 지어 알곡 많이 내자는 것이지 젊은 이들이 너도나도 춤이나 추고 축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때부터 農村의 운동회가 싹 없어졌다. 그러다가 1年쯤 지냈는데 61年 5月 3日에 이것을 5·3教示라 하는데 青年事業을 指導하는 中央委員을 모아놓고 유시한다. 그 内容은 青年들이 패기가 없다. 왜냐하면 青年들이 多様한 事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多様한 事業이란 줄달리기도 하고 축구시합도 하고 예술경연대회도 하고 등산도 하고 学校를 中心해서 多様한 운동경기도 갖고 낚시질도 갖고 환희에 넘치고 정열이 넘치게 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다시 活動을 開始했다. 지금 記憶이 나지만 62年, 63年 황해남도 안악군에 가보면 1年에 두번 천리마 작업반이 里単位로 줄다리기를 한 것을 보았다.

金·요즘은 農場別 対抗으로 한다.

崔·시기는.

金·명절때나 秋収가 끝나고 결산총회때 한다.

朴·그럴때는 農楽도 한다.

金·북·꽹과리, 장구 악기라곤 이 세가지 만이다.

崔·農楽을 韓国과 比較하면

孔 게들 農村単位의 農楽은 지극히 소규모다. 民族芸術団과 같은 전문団体들이 있다.

崔·農楽을 하는 目的은.

孔·最近에는 金日成指示에 依해 農村単位로 관현악단 하나씩이 다 있다. 그래서 行事때는 관현악단이 등장하지만 農楽도 가끔 한다. 農楽은 그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 뿐이다.

金·農楽을 하지만 부르짖는거나 国号는 모두가 金日成 찬양뿐이다. 金日成만세등등

孔·국악뿐 아니라 관현악까지 다 들어간다.

朴·北에는 고전음악단이란 국가단위의 악단이 있었고 민족예술극장도 있었다.

崔·마감시간이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재촉해야 하겠는데 혹시 北韓에서는 민간요법은 어느정도인지.

金·뱀은 생걸로 먹는다.

崔·약으로 아니면 食用으로 어느쪽인가.

金·물론 약도 되지만 영양보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뱀을 보기만 하면 필사적으로 잡아서 그 자리서 껍질을 벗겨 먹는다. 5月 10日은 大学生 農村봉사의 날인데 61年에 학생들과 농촌봉사 하다가 学生들이 뱀을 잡아 먹는 것을 보았다.

北韓의 식량배급이란 강냉이 밖에 안 나오니까 영양보충으로 뱀을 생결로 먹는다.

崔·개도 먹는가?

孔·개장국집이라 한다. 잘 먹는다

金·해주에 개장국집으로 有名한 식당이 있다.

崔·敎老思想은 어떤가?

孔·老人은 廢物이라 해서 組에도 참예 못하고 다만 人間的으로 老人에 対한 공경을 하지만 社会的으로 完全히 廢物이 된다.

崔·話題가 좀 달라지지만 北韓에도 도깨비나 유령같은 이야기들이 있는가

孔·있다. 58年度 내가 사는 故鄕에 남대천다리가 있는데 밤에 다리 中間쯤에서 老人들이 때마침 장보고 오는데 흰옷을 입은 女子가 나타나더니 가까이 가면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하더니 老人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갔다고들 한다. 이것을 마을사람들은 도깨비라고 했다.

崔·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孔·최근까지 있는 것 같다.

崔·총각이나 처녀가 죽으면 어떤가.

孔·총각이나 처녀가 죽으면 묻기는 하지만 墓도 없고 祭祀도 지내주지 않는다.

崔·結婚은 自由냐 仲媒냐 官製냐?

孔·그것은 社会階層에 따라 自由, 仲媒 또는 官製 모두 있을 수

있다. 仲媒는 대개의 경우 일꾼들이나 権力層에서 盛行한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強制性이 아닌 즉 自由를 거쳐 仲媒라는 形式을 取한다. 내가 만일 정치보위부에 있으면서 어떤 女子를 알게 되었다면 고위층에 신고한다.

崔·연애의 形態는?

孔·연애는 그저 편지 정도이지 韓国처럼 自由로이 만나서 데이트 하고 그런것은 없다. 또 그럴 時間도 없고 結婚할 의사가 있는 女子가 있으면 당 고위층에 報告를 해서 우선 男子가 出身成分이 좋았을 경우 당 고위층에서는 비밀히 女子의 出身成分을 조사하게 된다. 좋으면 結婚해도 좋겠다는 허락이 나오고 나쁘면 하지 말라는 말은 안해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종용한다. 그러나 고집해서 結婚하면 罷免시키거나 出世에 지장이 있다.

崔·그것은 당원의 경우이지만 비당원의 경우는 어떤가.

孔·非당원도 形式은 같다. 서로 사귀다 結婚할 뜻이 있으면 社会主義 労動青年団(前 民青)에 報告해서 意思를 묻게 된다.

金·官製結婚은 특히 幹部級인사중에서 간혹 생기는 수가 있고 당원들은 自由건 仲媒건 形式은 당의 승낙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崔·離婚은 어떤가.

孔·어떤 검사의 아내가 不淨에서 離婚을 하겠다고 했더니 女子가 出身成分이 좋아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真情을 했는데 72年

당 연합대회때 이것이 問題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合意離婚이 成立되었다.

崔·父母들이 子息들의 結婚에 어느 程度 관여하는가.

孔·父母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건 事実이지만 당원인 경우는 당의 영향이 더 크다.

崔·비당원의 경우 相対方의 어떤 기준을 중시하는가?

孔·出身成分을 본다. 財産, 職位. 당원여부등

崔·옛날 一般人이 양반을 넘겨다 보는것 같이 비당원은 당원을 넘겨다 본다는 것이겠군.

孔·朴. 그렇다.

崔·北韓에도 性犯罪가 있는가.

孔·72年 以前에는 性犯罪者는 모두 구금했다. 그러나 72年 11月 11日 〃性犯罪者와 관련하여〃라는 教示가 있었는데 이것은 性行為는 一体 事件化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社会問題가 되었을 때만이 問題를 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관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最近에는 상당히 性関係가 문란하다.

崔·北韓에도 父母들이 아들을 낳기 원하는가

孔·물론이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미안해 한다. 그러나 北韓은 個人財産이 없기 때문에 유산관계는 전연 없다.

崔·설날에 대해서.

孔·1月 1日을 설날이라 하여 이틀을 쉰다. 公休日이다.

50年代까지는 農村에서는 음력도 썼지만 지금은 음력을 全然

쓰지 않는다. 애들은 설빔으로 색동옷을 입고 老人들은 한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만 그밖에는 한복이라고는 없다.

세배하는 것도 없고 선물교환도 없다. 떡은 하지만 量과 質이 형편없고 茶礼는 새벽에 한다. 省墓는 하는 집이 있다.

지금은 端午는 없어졌다. 省墓가면 술따르고 절을 한다.

설날에는 작업반을 통해서 술과 쌀을 배급한다.

崔·그럼 北韓에는 조상숭배가 完全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朴·그것만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孔·金·조상숭배는 지금 젊은 層을 除外하고는 옛날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씨름은 국가적 명절때 경기로 한다.

연날리기는 정월달에 한다.

널뛰기, 그네뛰기는 수시로 한다.

8月추석 하루 休日, 最近 특히 南北対話 이후에 추석을 하루씩 놀려주었다.

崔·南北対話 이후에 北韓의 文化政策이 달라졌다고 보는가?

金·孔·틀림없이 달라졌다. 7.4声明이 있은 후에 추석을 하루 놀렸다.

崔·그 밖에 民俗놀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孔·윷놀이는 콩으로 아무때나 한다.

화투는 휴전직후까지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장기는 대

유행이다. 바둑은 없다. 사자놀이는 58年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강강수월래는 노래는 남아 있지만 유희는 없다. 활쏘기는 체육경기. 군사경기때 한다. 인형놀이는 없지만 평양에 인형극장이 있다.

崔・가족 친척의 호칭은 韓国과 같은가?

孔・거의 같다. 형부를 아저씨라 한다.

崔・동무라는 말이 호칭으로 쓰이는 範囲는?

孔・집안에서는 쓰지 않는다. 친구간에도「야・자」라고 한다. 公과 私를 구별해서 公的인 때 동무・동지를 많이 쓴다. 자기보다 위는 동지, 동급이나 아래인 때는 동무라 한다.

朴・그것은 6.25동란후 달라졌다. 6.25사변전에는 무조건 동무로 通用되고 널리 쓰였다.

金・6.26前에 北韓이 그랬으니까 韓国에 그것이 訛伝되었다고 본다. 부모보고도 동무라고 부르는 줄 아는 韓国人이 많은데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른다. 지금은 같은 동일직장에서 동무를 使用한다.

崔・지금까지의 対話를 종합해 보니까 北韓도 어떤 部分은 더욱 弾圧하고 어떤 部分은 방관내지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社会, 文化政策에 진통을 앓고 있다는 것을 認定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関心事는 7・4声明이후 즉 南北対話가 일어난 뒤 文化政策이 상당한 方向転換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伝統文化를 貴重히

여길줄 알아야 하겠고 또 北韓同胞들, 특히 젊은 層에서 점점 基層文化를 소원해 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들이 完全히 異質化되기 前에 南北이 統一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